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7일 “국민 누구나 어떤 경제적 상황이든 건강할 권리가 있다”며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이수진 당선인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고용 유지와 고용보험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경제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노동이 일상인 국민은 사회안전망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전 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민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긴급 재정지원보다 고용을 유지하고, 실업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지 않는 안전망 강화가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노동 환경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사회안전망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보건의료인이 누려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이 당선인에게 고용보험 확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대는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목표다. 이 당선인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며,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기본소득, 상병수당 도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논의가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됐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등 효과 일시적
기본소득·상병수당 도입 등
실업으로부터 생존권 보장해야



약력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재학 / 前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 現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 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기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계의 외침은 과장이 아닌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라며 “많은 저임금 비정규 임시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강도는 훨씬 더 크고 세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 4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고용보험에는 전체 취업자 2735만7000명 중 절반 정도인 1352만여 명이 가입돼 있지만,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13.8%, 355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 당선인은 “하루아침에 ‘수입 0’에 놓일 수 있는 노동자가 355만 명이 라는 뜻”이라며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수를 포함하면 그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실적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부터 기준, 가입대상과 범위, 실제 운영 시스템 등 숙제가 많다. 문제는 이를 논의하다 세월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고용 유지와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실업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성과를 기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 업체당 한도 1000만원·만기 5년

오늘부터 은행 창구서 접수... 사업자 등록증 등 서류 6종 필요
재난지원금, 11~15일 전국 997만여 가구 6조6732억원 신청

18일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동시에 진행한다. 1차 소상공인 대출 마감 이후 20여 일의 공백 기간이 생겨 수요가 급증한 상태에 재난지원금 신청자까지 몰리면서 은행 창구에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은 18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0조 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같은 날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도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진행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금리는 3~4%대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 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차 대출의 경우 금리가 지난 1차 당시(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하지만 여전

히 금리 수준이 시중금리보다 낮고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날 은행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도 받는다. 14개 시중은행 6500개 영업점 창구에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용카드의 제휴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 1~2일 후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창구 혼잡과 방역에 대한 우

려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기간과 중복되는 신청 첫째 주(18~22일)에 5부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인 18일에, 2나 7이면 화요일인 19일에, 3이나 8은 수요일인 20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15일 닷새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997만여 가구가 총 6조6732억 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닷새간 누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259만7831가구가 1조6321억 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금액의 26.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19만4805가구가 1조4428억 원(22.0%)을 신청했다.

김범근 기자 nova@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남다른 능력
to
색다른 내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부활한 '新냉전'... 美·中, 경제전쟁 넘어 군사 충돌 우려

대선 앞둔 트럼프, 노골적 ‘中때리기’ 안보·기술 등 확대
화웨이 금수 조치 강화하고 연기금 中기업 투자 중단
中 “美기업 보복 대응” 시사… ‘대만 문제’ 놓고 힘겨루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신냉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대(對)중국강경 조치를 연일 쏟아내면서 갈등 전선을 무역·안보에서 기술·군사·외교·기술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노골화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15일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수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은 화웨이에게 제품을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화웨이 수출을 규제해온 데 이어 금지 대상 기업을 해외로 확대한 것이다. 화웨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5G 관련 핵심 기업인 만큼 화웨이를 고리로 중국의 기술패권 압박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1년 연장했다. IEEPA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 시장에서의 전쟁도 선포했다. 미 정부는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인 '연방공무원 저축계정(TSP)'의 중국 주식투자 중단을 지시했다. 또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미 자본 시장에서 중국 기

코로나발 美·中 갈등 일지	
1월 31일	→ 미국, 중국발 승객 전면 입국금지
3월 12일	→ 중국, 미군의 우한 바이러스 전파설 발표
3월 17일	→ 중국, 미국 3개 언론사 기자 강제 추방
4월 14일	→ 트럼프, WHO 분담금 집행 중단 지시
4월 30일	→ 트럼프, 대중 보복관세 시사
5월 13일	→ 미국, 퇴직연금의 중국 주식투자 금지
5월 15일	→ 미국, 화웨이 금수 조치 강화
5월 17일	→ 중국, 애플·퀄컴·시스코 보복 시사

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중국도 인허가 지연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 대중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미국 대표 기업들을 콕
집어 보복 대응을 시사했다.

한구시보는 “미국이 화웨이 금수 조치 강화를 실행에 옮긴다면 중국은 강력히 보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 대상은 퀄컴, 시스코, 애플, 보잉 등 미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간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양국이 대만을 놓고 거친 힘 대결을 벌이고 있어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연초부터 대만 주변에서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H-6 장거리 폭격기, J-11 전투기, 쿵징-500 조기경보기 등을 대거 동원한 군사 훈련 빈도를 높여왔다. 이에 맞서 미국도 대만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펼치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 문제를 놓고 외교전도 치열하다. 미국은 대만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계기로 WHO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설득에 나섰다. 대만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 집권기인 2009~2016년 WHO 옵서버 자격을 얻었지만 차이 총통 취임 후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을 잃었다.

중국은 대만의 WHO 옵서버 재참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18~19일 WHO 총회에서 대만의 WHO 참여를 놓고 미·중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중 간 보복전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은 세계 경제 회복
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주요국 불안한 경제 활동 재개

이탈리아, 내달 3일 EU 이동제한 철폐·여행객 허용
 텍사스 주, 경제 재개 뒤 신규 확진 급증 부작용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가 꺾이자 세계 각국이 경제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재가동 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도 있어 아슬아슬한 경제 재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한국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59만6304명, 사망자는 30만9685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5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서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내렸던 봉쇄 조치를 완화하며 경제 활동 재개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 주요국들도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허용한다. 독일과 스위스는 맞댄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독일은 5일 16개 주 정부와 합의해 음식점 영업도 허용했다. 오스트리아도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사이 국경 통제를 내달 15일부터 완전히 철폐한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거점이었던 이탈리아는 4일 제조업·도매업·건설 공사 등을 정상화한 데 이어 18일부터 음식점 영업도 재개한다. 내달 3일부터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이동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받는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생권협정' 가입국 관광객들은 14일간의 격리기간 없이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다. 자국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내달 3일부터 생권협정 가입국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함께 경제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는 이탈리아가 국경 빗장을 열어 고사 위기에 처한 관광산업을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관광산업이 이탈리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다.

그리스도 16일 전국 500여 개 해수



1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정부 봉쇄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육장을 일제히 재개장했고 18일 야외 유적지도 다시 문을 연다. 또 7월 1일부터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터키는 러시아·독일 등 31개국을 대상으로 의료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일찌감치 경제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48개 주가 부분 경제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조기 경제 재개에 나선 텍사스 주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치솟고 있다. 1일 자택 대피령 완화 이후 신규 확진자가 20~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뉴욕주는 5개 지역의 경제를 재개했으나 경제 정상화를 위한 7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뉴욕시는 6월 13일로 자택 대피령을 연장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이면서 가장 먼저 경제 재개에 나선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 조짐이 나타나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봉쇄 해제 이후 25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린성 수란시는 16일 전역에 대해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올캔두잇! 올원뱅크 ♪

금융부터 다양한 생활 혜택까지!
올원뱅크의 무한능력을 만나볼까요?

- 하. 무료할 때 VOD, 웹툰, 웹드라마를 무료로 즐긴다
- 들. 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금융을 손쉽게 해결한다
- 셋. 원하는 환율일 때 환전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쓴다
- 넷. 생활 속 유용한 상품을 최대 90% 할인로 구매한다

무한능력 생활금융 플랫폼 **올원뱅크**

QR코드로 간편하게 올원뱅크를 검색해보세요

※ 무료 코인 제공으로 웹툰 감상 가능 ※ 추첨을 통해 1명당 상품 구매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01818(2020.04.28~2022.04.25) ※ 서비스 관리 부서: NH농협은행 올원뱅크센터(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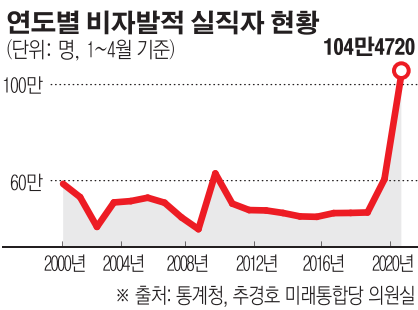
NH농협은행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NH 농협

1~4월 비자발적 실업자만 104만명 ‘역대 최대’

폐업·명퇴·해고·사업부진 사유
자발적 실직 합치면 207만여명
실직자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



올해 들어 4월까지 실직한 취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다. 경기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진 결과다. 전체 실직자 중 절반 가량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직자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17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계청 고용동향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4월 실직해 실직 상태가 4월 조사시점(18일)까지 이어진 인원은 20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직 시기가 조사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4720명이었다. 1~4월 실직자 및 비자발적 실직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때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비자발적 실직자는 2009년(63만8000명)보다 63.8% 많았다.

통계청은 매달 중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직한 사람 수와 실직 시기, 실직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실직 사유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 1~4월 실직사유별 비자발적 실직자 수를 보면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33만5000명)'와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34만4000명)'이 가장 많았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20만5000명)'와 '직장 휴·폐업(16만 명)'은 앞의 두 사유보다 적었으나, 직전 최대치였던 2009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1~4월 전체 실직자 207만6000명 중 85만5000명(41.2%)은 1~4인, 45만명(21.7%)은 5~9인 사업장에 종사 중 일자리를 잃었다.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는 총 14만6000명이었는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전체 실직자 중 가구주는 86만6000명(41.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는데, 그중 52만3000명은 비자발적 실직자였다.

실직자가 증가한 주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가 꼽힌다. 전체 실직자는 1월 43만3000명에서 2월 74만9000명, 3월 72만7000명이었다.

다만 실직자 증가를 온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 2월까지 코로나19의 고용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관계없이 자영업 업황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는 대면거래(오프라인)의 비대면화(온라인),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비용 증가, 전반적 경기 부진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세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겹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항공업계, 1분기 400여명 짐 싸

코로나 장기화에 구조조정 예고
하청업체 포함땐 실직자 더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올해 1분기 항공업계를 떠난 종사자들이 400명을 넘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백억~수천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워진 항공사들이 꺼내든 인력 구조조정 카드와 자발적인 퇴사 등이 인력 감축 배경이다. 하지만 당분간 여행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2분기 고용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 7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의 임직원 수는 3만8433명이다.

작년 12월(3만8850명)과 비교했을 때 417명 줄어든 것이다.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에어서울을 고려했을 때 올해 1분기 항공사를 떠난 직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기업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 직역 탄을 맞게 되는 비정규직들은 지속적으로 권고사직 등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에어서울을 제외한 7개 항공사에서 짐을 쓴 직원 중 비정규직(245명)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글로벌 노선에 전혀 비행기를 띄우지 못해 고정 수입은 없는 반면 매달 수천원 원

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는 항공사들이 가장 먼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건비다. 항공사들이 매달 써야 하는 고정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 유튜브 다음으로 높다.

당장 퇴직은 아니더라도 국내 모든 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순환, 무·유급 휴직에 돌입한 상태다.

실직태풍은 2분기에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독일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여행 수요가 당분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성 위기로 쪼टा운 중인 이스타항공은 직원 350명 내외를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상조업사, 항공사하청업체들의 무급 휴직과 해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항공업계 연관 종사자들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를 잃은 관련 종사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인력 구조조정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가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입이 가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인력 감축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예상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수익성 회복이 더디면 결국 휴직에서 퇴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인력 감축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한영대 기자 yeongdai@

“임금 깎아 일자리 지키면 노사 모두에 세제 혜택”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이다. 정부는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각적으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정책 중 하나는 노사가 상생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노사 양측에 모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에도 근로

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삭감해 고통을 분담하면 근로자에게도 소득·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전례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위와 같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임금 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고, 근로자에 대해선 삭감임금의 50%를 소득공제 해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마스크 안쓰면 비행기 못타요”

대한항공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체크인카운터 앞을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등교수업, 학년별 격주제 또는 격일제 운영

박백범 교육부 차관 입장 밝혀

20일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3 등교 개학 관련 사항 브리핑’을 열고 “고3의 경우 진로·진학을 위한 학사일정 등 현실적 등교 수업 필요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3의 우선 등교 요구도 높았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고3 등교 시작일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박 차관은 “학년별로 이번 주에는 2학년이 나오고 다음 주는 1학년이 나오고, 안 나오는 학년은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격주제 또는 격일제를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위학교는 시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틀테면 학급에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볼 때처럼 4주 7명을 이격해 시험대형 형태로 책상을 배치한다. 과밀학급 수업은 과학실, 시청각실 등 특별실을 활용하고, 도서관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등 공동시설 이용을 최소화한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 일정을 일주일씩 연기했다. 20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내달 1일,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같은 달 8일에 등교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코로나가 ‘비대면 서비스’ 키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의 피해가 컸지만 서비스업 혁신을 가속

산업연 ‘포스트 코로나...’ 보고서

피해 컸던 서비스업 혁신 계기로 새 모델 시장서 자리잡을 수 있게

규제 개선·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

하는 계기가 됐다. 분석이다.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서비스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 이에 산업연구원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규제 개선·사회적 갈등 해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한 2월 중순 이후 서비스업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초반에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여행업, 숙박업, 항공, 면세점 등이 타격을 입었고 음식점업, 공연예술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부정적 효과가 퍼졌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월 106.4에서 3월 101.7로 감소했다.

다만 소비 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늘었다.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3.3% 감소했으나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6.9% 급증했다.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의 비중은 1월 22.9%에서 3월 28.2%로 5.3%포인트 확대했다.

외식업에서는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해당 업종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이뤄진 3월 결제금액은 1월보다 44%가량 증가했다.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에서 여가나 레저 생활을 즐기던 사람들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눈을 돌렸다. 넷플릭스의 3월 국내 사용자 수는 463만 명으로 2월보다 22% 늘었고 총이용 시간은 34%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가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산업이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다”며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안정할 수 있게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스쿨미투’ 쏟아지는데… 예비교사 성교육 ‘안해도 그만’

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바닥’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교육현장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투데이가 17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2019년 소청심사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12명의 초·중·고 성비위 징계 교원 중 96명이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접수된 사건의 3건만 인용했고, 나머지 93건은 불인용했다.

특히 파면 사례를 보면 해당 교원들은 학교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중학교 교사 A 씨는 여학생의 안쪽 팔을 잡고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또 다른 중학교 교사 B 씨는 학생을 꺼안거나 어깨와 등을 계속 만지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 C 씨의 경우 아이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지속적인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

최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내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사는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교사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 일부 교원의 성비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교원을 준비하는 대학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비 교사들 성폭력 예방교육 전무.. “이수교과 편성 시 가산점” = 교육 현장으로 갈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

여학생 팔 주무르고 어깨 만지고 초등학교 교사는 ‘속옷빨래’ 과제 교원 양성 ‘허술한 성교육’의 민낯

성평등 교육, 충장재탕… ‘권고’ 그쳐 이수과정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성범죄자 교원자격 박탈법’ 속도를

육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직 이수 과정에는 성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교원이 된 이후에는 매년 관련 연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학교장 재량이다.

이혜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대나 사범대 교육과정에 성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구성은 각 학교장(대학총장) 재량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직 이수 필수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편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해지는 것과 관련해 교직 이수 과정에서 의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육영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보건교육포럼 이사장)는 “교대나 사범대에서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전공이나 필수 교양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선생님이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른 인식 등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성폭력 대처 매뉴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성적 행동에



서)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이력 예비교사, 교원 자격 못판다 =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라며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성범죄자가 교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지만 관련 법·제도는 없었던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 때 ‘불이익’ 수준이 아닌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 성비위를 예방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과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성교육과 성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등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우리가 보호”

대안교육 시설 성범죄·인권침해
경찰신고·의료지원·법적대응 등
피해자 보호 통합지원센터 운영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법적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교육당국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만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수사·의료·법률 등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다.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해바라기센터에 있는 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 학교 안도, 밖도 아닌 ‘중간지대’에 놓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의지할 수 있다.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적용받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심지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은 법으로 근거한 학생도 아니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국가공무원이 아니

어서 현행법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내 성폭력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여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인권 침해를 받은 이들을 위해 전국 성폭력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다. 폭력, 학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소송비용과 법률상담 비용으로 연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여가부는 1억800만 원을 들여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김애영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일어난 일은 결국 사적인 영역이기에 경찰이 개입한다”며 “여가부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생을 국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 콜센터를 만들거나 법률을 지원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건강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간편청구서비스

KB생명보험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일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사고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협회의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www.kbf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文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 힘 실리는 강제조사권

5·18조사위 “강제구인 못해 진상규명 한계” 어려움 토로
文 발언에 조사권 확보 기대감…野 주호영·유승민 광주행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

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해 발포 책임자 규명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12일 조사 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과거 40년 동안 의혹의 대상이자 미해결 핵심 과제였던 발포명령·지휘 체계 등에 대해 모두 9차례 조사했지만,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포 책임자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는 말단 병사와 조금 간부들을 포함한 ‘아래에서부터’의 조사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 발포 명령자에 대한 조사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란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면서 특별법 개정 이상의 영향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게호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발전시키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특정 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특별성명에서 “정부 여당은 5·18 영령들이 피로써 목숨 바쳐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독선과 아집, 증오와 배제의 정치와 국정운영이 과연 영령들이 바라는 그 모습일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정신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있었다”면서 “당이(5·18 왜곡·비난에)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다”며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이라도 전심을 담아 그런 부분에서 사죄를 드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면,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한 것을 공식 사과하면서 “5·18단체를 법정 단체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코로나 중대본회의 참석하는 유은혜·김현미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스

20대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 거둘까

코로나·n번방 관련법 합의…과거사법 ‘정부 배·보상’ 제외 전망

여야가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처리 등을 합의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까지 남은 나흘간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갯갯’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n번방 관련 후속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

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적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정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에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남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법 개정안 36조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통합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사법 관련 사건 피해자들에게 들 것으로 추산되는 4조6800억 원의 액수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배·보상 문제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우선이라는 데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김하늬 기자 honey@

文대통령,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재정악화 대책 논의… 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5% 넘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여당·정부와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적자 확대와 관련해 대응 방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23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많은 819조 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와 같은 1914조 원에 머

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치솟는다. 만약 3차 추경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채무비율은 더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채무비율은 이미 내년 전망치에 근접한 41.2%로 올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0. 05. 18. 05호

영혼의 우리 노래의 길을 찾는
국악인 김영임의 삶과 꿈

무엇이 더 좋고 어떻게 더 좋을까?
VIRUS

영화(영화) 작가 정태민
“일을 할 때
공감 못할 게 없다”

“젊은 소년”
가수 이경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한성희 정신과 전문의
가정(가족)의 마음
오랫동안 ‘나’로 성장하며
오해를 받고 방황했던
‘나’에게 보

목호동대마을의
추억 앨범 ‘눈골담길’

COVERSTORY 바이러스의 진실

PART1. 코로나19로 물든 봄에 드리고 싶은 말씀
PART2. 바이러스를 둘러싼 19가지 궁금증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PART4. 바이러스 퇴치 면역력이 담이다
PART5. 허구가 만들어낸 ‘제2의 바이러스’

더불어 숲
눈골담길에
다들 물어봐
눈골담길
눈골담길

고수열전

삶을 동태 긍정 못할 게 없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며, 그 어떤 관능에도 휘둘리거나 꼬리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며,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어렵다. 역사 속에서 피고 뒤엎겨 좁은 세계에 갇히는 게 사람이다. 신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위안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채는 게 사람이다. 도들이야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나는 누구인가?

신라산과 만남 사랑

눈은 소년
가수 이경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우리 노래의 길을 잇는
국악인 김영임
대한민국 단 하나의 소리로
거들거릴 위한 여정

주요리제
실과 스토리를 새겨 넣다
해파에서 더 빛나는
보석 디자이너 김정희

김혜영의 느린 여행
목호동대마을의 추억 앨범 ‘눈골담길’
시집 ‘목호동’ 읽고 목걸이를 안 마실 수 없다는
산책의 SNS 글을 보고, 가려 속 목호동을 떠올렸다.
목호동대마을의 바둑고 기파른 골목 골에서 마주했던
김부은 바다, 슬레이트집 담벼락에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목호동대 특집 인바지에서 청문으로 감상했던
목호의 방 풍경들. 유난히 목호에 끌리는 건, 왜일까.
좋은 건 이유가 없다더니 목호가 그랬다.

생생 부동산 현장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자용팔달’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혼동이 불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권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시니어 반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영양 만점 달걀로 채운
봄소풍 도시락

투자 고수와 놀자
김혜영 하나은행 은택설계센터 수석연구원
노후 자산관리
“넓~게 보고, 깊~게 가라”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건강증진을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꾸고 당신에게 좋은보험을 시작하자!



공원에서 걷기운동 중인 가족. 날씨가 풀리자 걷기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 호수공원에서 담소

가장 쉬운 건강습관, 걷기!

생활 속에서 당장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을지 바쁜 생활에 지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운동도 고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습관부터 바꿔 간다면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은 좋아질 수 있다. 대중교통과 차보단 출퇴근 한다면,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습관처럼 시작해보자!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걷기와 달리기이다. 60년대부터 조깅의 열풍이 있었고, 80년대 이후로는 걷기도 하나의 운동으로 인정받으며 유행을 타기도 했다. 걷기 운동은 현재까지도 생활 밀착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사랑받고 있다.

걷기는 나이, 체중에 상관없이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관절에도 부담이 적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경제적인 무자 없이도 출퇴근길이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며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렇다면 내 몸을 변화시키는 걷기 운동의 또다른 장점들을 알아 보기로 하자.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걷기 운동의 최적의 파트너

1. 체중 감량 효과

15분 이상 걷게 되면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변화한다. 체중 60kg의 성인이 시속 8km의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을 고파

전으로 약 200kcal, 평균 주 2-3회 걸면 약 15kg는 감량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해소 걷기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것이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수면이 개선되어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3. 골다공증 예방 걷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걷기 운동을 하면 뼈 속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수면이 개선되어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달의 걷기 좋은 길 5선

가족과 걷기 좋은 한국의 길

1. 서울 성곽길 구간 코스

홍익자문-낙산-해운대, 걷기에 수월한 서울 성곽길 구간은 연인들의 데이트길로 유명하며 풍경이 뛰어나고 소나무 숲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2. 속초 해파랑길 45코스 구간 코스

대포령-등대 전망대-장사항, 속초의 다양한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해파랑길은 오르내림이 많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속초만의 독특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하루 일 없이 연중 개방되며 무료주차 가능하고 입장료 역시 무료이다.

3. 전라도 해파랑길 45코스 구간 코스

선착장-꽃섬다리-애랑면야생화공원, 해안선을 따라 약 5km를 걷는 코스로 이름처럼 유채꽃, 제비꽃, 동백 등 다양한 봄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 4. 경기도 심학산 둘레길 구간 코스 코하대수지-약정사-수부바위-대정사-전망대-선남리-전원마을-배수지, 산은 해발 200m가 조금 안되는 산이지만 환경이 좋고, 산자리에 있어 사방을 아우르는 전망이 뛰어나다. 심학산 둘레길은 노년의 공복이 없어 걷기 운동 초심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 5. 대전 계족산 둘레길 구간 코스 계족산 유망담 관리사무소-다목적 강장-숲속

삼성화재, 건강증진형 신상품 「마이헬스 파트너」

에너지 걷음 목표 달성 시 보험료 일부 포인트로 돌려줘

삼성화재는 건강증진형 신상품 「마이헬스 파트너」를 출시한다. 마이헬스 파트너는 주로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일반형 건강보험으로 자사 건강증진 서비스 에너지 걷음(Energy Walk)과 연계해 걸음으로 달린 시 보장보험료의 최대 5%를 삼성화재 에너지포인트로 돌려준다. 만 1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생애주기별 꼭 필요한 보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보장을 (해당 특약 가입 시) 맞춤형 건강보험이다.

이 상품에는 질병후유장해와 질병일종원 수술비 보장이 신선했다.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질병으로 3% 이상 장해 발생 시 신체 부위별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일종원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동원 수술을 보장하며, 특히 대 수술 중 용골을 제거해도 수술비가 든다.

또한, 10년간의 3대 중대질환 보장은 기본으로, 10년간의 경우 첫 번째 뿐만 아니라 중대질환과 관련된 재발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 또한, 10년간의 질병 진단비 및 하혈성 질환 진단비, 특히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비도 10년간 보장된다. 이외에도 10년간의 10대 질환과 5대(위암, 폐암, 갑상선, 유방암) 특정 질환도 10년간 보장된다.

또한, 10년간의 10대 질환과 5대(위암, 폐암, 갑상선, 유방암) 특정 질환도 10년간 보장된다. 이외에도 10년간의 10대 질환과 5대(위암, 폐암, 갑상선, 유방암) 특정 질환도 10년간 보장된다. 이외에도 10년간의 10대 질환과 5대(위암, 폐암, 갑상선, 유방암) 특정 질환도 10년간 보장된다.

에너지 걷음(Energy Walk)은 마이헬스 파트너 가입 시 10년간의 10대 질환과 5대(위암, 폐암, 갑상선, 유방암) 특정 질환도 10년간 보장된다. 이외에도 10년간의 10대 질환과 5대(위암, 폐암, 갑상선, 유방암) 특정 질환도 10년간 보장된다.

마이헬스 파트너 가입 고객은 에너지 걷음(Energy Walk)을 통해 매일 10만 이상 걸음에 달성 시 다음달

보장보험료의 5%를, 8천보 달성 시 3%를 에너지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서비스는 10년간만 제공된다.

삼성화재 에너지포인트는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삼성화재는 고객에게 보험가입, 계약유지, 건강증진 서비스 에너지 걷음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삼성화재 에너지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출석체크, 선물박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특히 개인용 착용기모인, 허벅지보형 및 장기보형보형기 보형기, 걷기에도 에너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 「마이헬스 파트너」를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사전 삼성화재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포인트몰에서는 차량용품, 생활용품, 건강용품, 유아용품, 놀이공원 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뿐만 아니라 커피, 영화, 편의점 등 모바일 쿠폰도 구입 가능하다. 에너지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편에 맞게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걷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삼성전자의 '삼성헬스' 앱에서 걸음수를 가져온다. 삼성헬스 앱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사용자라면 보다 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에너지 걷음 서비스 이용하려면 삼성헬스 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화재 에너지 걷음 설치하면 된다. XGS는 앱스토어에서 삼성헬스 앱을 설치한 후 삼성헬스 안에서 에너지 걷음과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에너지 걷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또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향후 건강관리를 잘 하는 고객을 위한 우대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나 건강보험 태평삼대를 리스와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을 통해 고객은 건강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보험사는 건강해진 고객을 바탕으로 위험률을 낮출 수 있어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고 아직 건강증진형 보험이 없다면 놓쳐져 불쌍하다고 귀띔했다.

당신의 봄

아무리 든든한 보장도 건강보다 든든할 순 없으니까

삼성화재 건강보험이 보장은 물론, 걷는 만큼 쌓이는
포인트 혜택으로 당신의 건강을 응원할게요



삼성화재 건강보험

보장은 물론, 걸음수만큼 포인트 혜택

생애주기별 꼭 필요한 보장으로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3대 주요 질환(암/심근경색/뇌혈관질환)

진단비를 보장해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태평삼대 플러스

매일 걸음수 목표 달성 시 삼성화재 에너지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포인트 제공기간은 최초 보험 계약 체결 후 2년간 제공하며, 월 최대 적립포인트는 2만 포인트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 결제나 삼성화재 포인트몰에서 상품,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15일 이상 하루 8천/1만 걸음 이상 달성 시, 월말한산기준 보장보험료의 3%/5%에 해당금액의 매일 조건 충족 시 에너지포인트 적립. 보장보험료 중 일부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이 계약은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 모든 상품 합산) 예금자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태평삼대 플러스) 10/15/20년 만기 자동갱신형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대 갱신나이는 100세(일부 담보 80세)입니다. (마이헬스 파트너 1종, 2종)의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최초 가입 후 갱신주기(3/10/15/20년)마다 갱신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고 기본계약 보험한가(90세 또는 100세)(일부 담보 80세) 계약해당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9138호(2020.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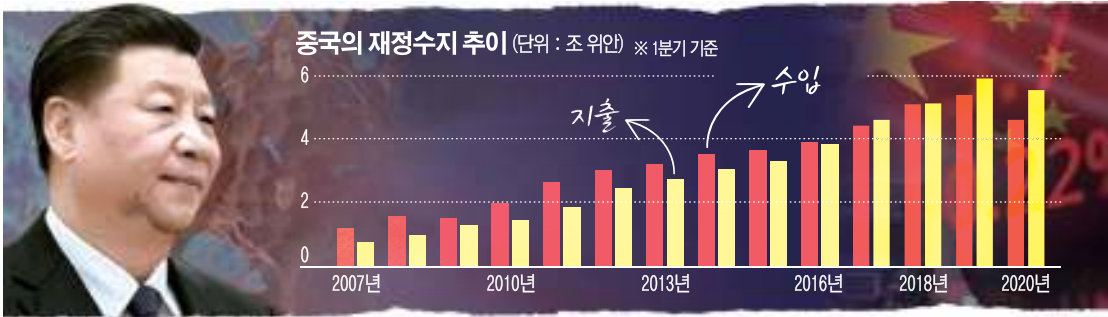
中, G2갈등·코로나 속 양회 개막... ‘성장률 목표치’ 주목

예년보다 2개월 반 늦은 22일 ‘언택트’로 열려
외교갈등·경기둔화... 목표치 제시 못할 수도

22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서 양회는 매년 3월 5일부터 개최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지난달 말에야 겨우 일정을 잡았다.

시진핑(사진)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부채 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커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약 691조 원) 규모의 극적인 부양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가 바꾼 전통=올해 양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 개막한다. 이에 회의는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간도 예년보다 짧아진다.



또 참여 인원과 취재진 규모도 대폭 줄어든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10일 정도 열렸지만, 올해는 1주일로 단축된다. 또 올해에는 약 3000명의 중국 국내외 기자가 취재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 기자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기자에게만 취재가 허용되는 등 중국 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점을 최대한 고려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중국 지도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수치 대신 문장으로만

남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매년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GDP 성장률을 포함해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함으로써 국제 시장에 중국의 한해 경제 방향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작년 목표치는 6~6.5%였다.

◇‘경제나 부채냐’ 딜레마=다만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으면 무리하

게 경기부양책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 2009년 1분기 신규대출은 4조6000억 위안으로 당시 GDP의 62%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신규대출은 7조1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는 4월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거시 경제 정책의 자극이 너무 강하면 인플레이션과 부채 비율 급등을 초래한다”며 자국의 경기부양책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코로나 수출 책임 논란=코로나19를 둘러싸고 중국 책임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시진핑 정권은 고압적인 외교로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동·남중국해에서 자국 선박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호주에서의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했다. 아울러 관영 인민일보를 통해 코로나 책임론을 반박하며 자국이 취한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미국의 존재감이 저하된 틈을 타 자국의 입지를 굳히려는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태도는 세계에 불안정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사우디 국부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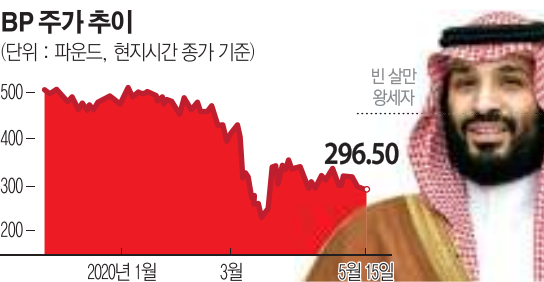
PIF ‘폭풍매수’ ... 선진국 대형株 싹쓸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서방국의 대형주를 혈값에 대거 사들였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PIF)는 올해 1분기에 미국과 유럽의 유망기업 주식을 70억 달러어치(약 8조6000억 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PIF는 국제유가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에너지주를 비롯해 금융주, 반도체주, 기술주 등을 쓸어 담았다.

PIF는 올 1분기 BP(8억2780만 달러), 로열더치셸(4억8400만 달러), 토탈(2억2200만 달러), 쉘코에너지(4억8100만 달러) 등 유럽 에너지 관련주를 각각 사들였다.

이외에도 씨티그룹(5억2200만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4억8800만 달러) 등 미국 금융주도 매입했다. 또 페이스북(5억2200만 달러), 디즈니(4억9600만 달러), 시스코(4억9100만 달러), 메리엇(5억1400만 달러), 크루즈 운영업체 카니발(5억 달러),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7억1400만 달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식을 쓸어 담았다.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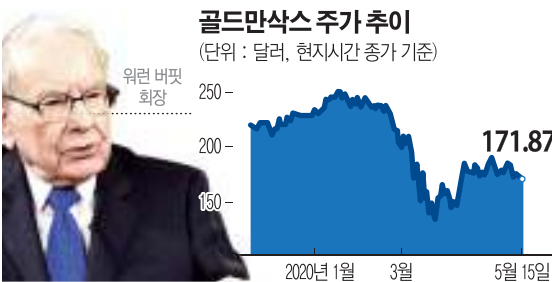
의 주요 기업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기회로 혈값 쇼핑에 나선 것이다.

사우디가 국제유가 급락에 10년여 만에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가운데 PIF가 증시 매입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까지 PIF는 증시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에 집중해왔는데 성격이 부진했다.

PIF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 계획하에 진행되는 대형 국책 사업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 PIF 대변인은 주식 혈값 쇼핑과 관련해 “사우디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장기 수익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진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버핏 ‘폭풍매도’ ... 골드만삭스도 팔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세상이 바뀌었다”며 항공주를 대거 팔아치운 ‘가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파격 행보가 연일 화제다. 미국 항공주와 지방 대형 은행주를 팔더니 급기야 12년 만에 월가의 간판인 골드만삭스의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0년 전통의 골드만삭스가 버핏에게 버림받았다”고 했다.

16일(현지시간) FT에 따르면 버크셔는 1분기에 골드만삭스 지분을 1200만 주에서 192만 주로 84% 줄인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혀졌다. 작년 12월 31일 시점에만 해도

버크셔는 골드만삭스 지분율이 3%에 이르는 대주주였는데, 이번 매각으로 지분율은 0.6% 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에 처한 골드만삭스에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50억 달러(약 6조1650억 원)를 투자한 버핏의 투자 방침에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버핏은 이번 골드만삭스 지분 매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항공주 매각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1분기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을 휩쓸면서 거의 33%나 빠졌다.

하지만 버핏이 골드만삭스의 주식을 처분한 건 코로나19 영향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계의 비즈니스 여건이 더욱 악화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실적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골드만삭스의 순이익은 12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22억5000만 달러에서 46%나 줄었다.

버크셔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버크셔도 올해 1분기 497억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버크셔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까다로운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개인 위생
매뉴얼 준수

위생 전문가의
관리

철저한
소독·살균



마스크 효과 입증됐는데… “보기 안좋다” 버티는 트럼프

코로나19와 마스크

착용률 높은 하와이·뉴욕·뉴저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
착용률 낮은 미네소타·앨라배마 등
확진자 계속 늘어 불안 고조
美 백악관 뒤늦게 착용 의무화
트럼프 착용 거부해 비판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의 유효성이 재평가받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최근 니혼게이아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업체 유고브는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미국 내 지역별 마스크 착용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주(州)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하와

이로 58%에 달했다. 뉴저지 56%, 컬럼비아 56%, 뉴욕 53%, 캘리포니아 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마스크 착용률은 미국 전체(43%)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마스크 착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들도 있었다. 사우스다코타(32%), 미네소타(33%), 앨라배마(38%) 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마스크 착용률과 신규 확진자 증가 사이의 관련성이다. 뉴욕타임스(NYT)가 3월부터 5월 12일까지 집계한

결과,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현저하게 줄었다. 하와이, 뉴욕, 뉴저지 등에서 마스크 착용률이 높았는데,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미네소타,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 등지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었는데, 이들 지역의 마스크 착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유고브 통계 중 마스크 착용률이 낮았던 몬테나(23%), 아이오와(29%) 등에서 감염자 증가세가 유

지되거나 둔화하기도 했다.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절대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닛케이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외출 시 타인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가 지역별 감염자 증감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미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감염 확산 방지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에 마스크 착용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모범 방역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이 호평을 받자 필요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기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변인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의 개인비서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 내 긴장감이 고조됐고, 결국 백악관은 직원은 물론 출입 기자들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그는 4월 초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인사들과 면담하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군 최고 통수권자인 트럼프의 마스크 착용 거부만 안전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맞설 다스베이더 돼라”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마스크 쓰면 악당·투병환자”
서양, 마스크에 부정적 시각
동양과 비교해 착용률 낮아



4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 지역에서 다스베이더 복장을 한 정부 관계자가 코로나19로 격리된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있다. 마닐라/로이터 연합뉴스

는 철가면을 씌워 바스티유 감옥에 가뒀버렸다. 따라서 철가면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천벌 같은 도구였다.

서양에서 마스크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 유학생이 영국 셰필드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미국 뉴욕에서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해리스 알리 캐나다 요크대학 사회학 교수는 “북미에서 마스크는 아시아인들과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지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투병 환자나 쓰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보통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의도로 여겨졌다. 미국의 영웅 캐릭터인 ‘배트맨’이나 ‘조로’의 경우 눈은 가려도 입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 수메이대 호리 미쓰토시 교수는 “서양에서는 얼굴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마스크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에 대한 서양인들의 거부감이 잠시 줄어들 수 있겠지만 깊이 자리잡힌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981호(2019.11.15~2020.11.14)
교보증권 준합격사인 심사필 제 75-158호(2019.11.15~2020.11.14)

KYOBEO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전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롯데백화점,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리언, 부엌용품이벤트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A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매직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총독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제자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알고서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과 보험에 비해 채권보통공사가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감리·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에 한해 MTS 혜택 시 0.114%의 수수료에 수수료를 더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대 주담대’ 머지않았다

코픽스 0.06%p 내려… 시중銀 주담대 금리 2%대 초반 ‘역대 최저’

‘코로나 확산’ 시중금리 인하 반영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2% 초반대까지 떨어진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포인트(p) 내린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은 2.40~3.90%로, 우리은행은 2.71~4.31%, NH농협은행은 2.27~3.88%까지 떨어진다.

신잔액기준 코픽스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7%포인트씩 조정한다. KB국민은행은 2.66~4.16%로, 우리은행은 2.82~4.42%, 농협은행은 2.38~3.99%이다.

코픽스와 연계된 금리를 매일 산출하는 신한은행은 2.49~3.74%로 종전보다 0.01%p 낮춘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주

은행	신규 취급액		신잔액	
	5월 15일	5월 18일	5월 15일	5월 18일
국민	2.46~3.96	2.40~3.90	2.73~4.23	2.66~4.16
신한	2.50~3.75	2.49~3.74	2.50~3.75	2.49~3.74
우리	2.77~4.37	2.71~4.31	2.89~4.49	2.82~4.42
하나	2.754~4.054	2.740~4.040	2.474~3.774	2.440~3.740
농협	2.33~3.94	2.27~3.88	2.45~4.06	2.38~3.99

택담보대출 금리를 2.74~4.04%로, 신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2.44~3.74%로 각각 0.014%p, 0.034%p 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떨어진 시중 금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로 전월보다 0.06%p 하락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1.61%로 같은 기간 0.05%p 떨어졌고,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1.31%를 기록하며 0.07%p 밀려났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

의 가중평균금리 값이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한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다양한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추가해 산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소상공인 외면 ‘씨티·SC제일銀’ 정부, 이차보전 지원금 50억 삭감

시중銀 5곳에 10억씩 재배정

외국계 은행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이하 이차보전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금융당국이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씨티은행에 할당된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줄어든 50억 원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10억 원씩 재배정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 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보전 대출로 불린다.

정부는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3.83%로 가정해 전체 대출 규모(3조 5000억 원)의 이차보전액을 604억 원으로 삼고 은행별로 수준을 정했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 보전액을 감안하면 씨티은행은 1460억 원, SC제일은행은 190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전체 지원액도 적었지만 되레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SC제일은

행은 7%대, 씨티은행은 5%대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렴한 금리(3.84%)를 적용한 농협은행과 비교하면 적게는 1%포인트, 많게는 3%포인트가량 차이는 수준이다.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적용해도 소상공인들은 당장은 대출 원금의 연 1.5%만 내면 되지만, 이차보전 지원이 끊기는 1년 후에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차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안 따르는 은행은 리스크가 줄고, 잘 따르는 은행은 리스크가 늘어나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며 “외국계 은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지원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은행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방침에 잘 따르지 않았다.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달래고자 지난달 초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과 관련한 전산 작업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두 외국계 은행은 국내에서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모그룹에 보낸다. 2018~2019년 배당 규모가 씨티은행이 9994억 원, SC제일은행은 7670억 원에 달한다.

김범근 기자 nova@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EHAGO



손태승(뒷줄 왼쪽 세 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두 번째) 우리은행장이 ‘디지털비전’ 선포식 및 ‘디지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자회사 CEO로 구성된 디지털혁신위원회 위원, 젊은 직원들로 꾸려진 블루팀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금융그룹

‘언택트’ 승부수 띄운 손태승

우리금융 디지털혁신위 발족

“언택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넥스트 노멀(새 표준)이다. 지금이 디지털 혁신의 골든타임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15일 디지털 혁신 위원회를 발족하며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을 최우선 전략으로 하고,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의지는 ‘디지털 퍼스트, 체인지 에브리팅(Digital First, Change Everything)’ 슬로건에 담았다.

이 위원회는 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총괄장을 맡는다. 젊은 직원들로 꾸려진 ‘블루팀’도 참여한다. 리더십은 톱다운(Top-Down·위에서 아래)이지만, 직원들이 현장에서 얻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Bottom-up·아래서 위)할 방침이다.

손 회장은 이날 경영협의회도 함께 진행하면서 소개인화 마케팅 방안, 모바일 플랫폼 체계 구축 등 10대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전산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에는 그룹 공동 클라우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타 업종과도 적극적으로 손잡는다. 과감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외부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 과정에 직원을 파견한다. 디지털 인재에 그룹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손 회장 지론이 반영됐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모바일 브랜드 원(WON)을 중심으로 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금융에 디지털 혁신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

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내 PC 원격접속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작업을 하며,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

팩스

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팩스본을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WE드라이브(10G)

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협업하고, 방화벽이 없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

채팅&메신저 (WE톡)

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음성, 화상회의, 투표, 알림 등,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

메일(1G)

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용 메일 서비스입니다.

일정관리

일정 초대와 공유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회의, 자문, 업무, 업무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

화상회의

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과 음성을 공유하며, 다양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보고가 가능하여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할일관리

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하는 시간과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문자서비스

가져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가져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발송을 지원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웹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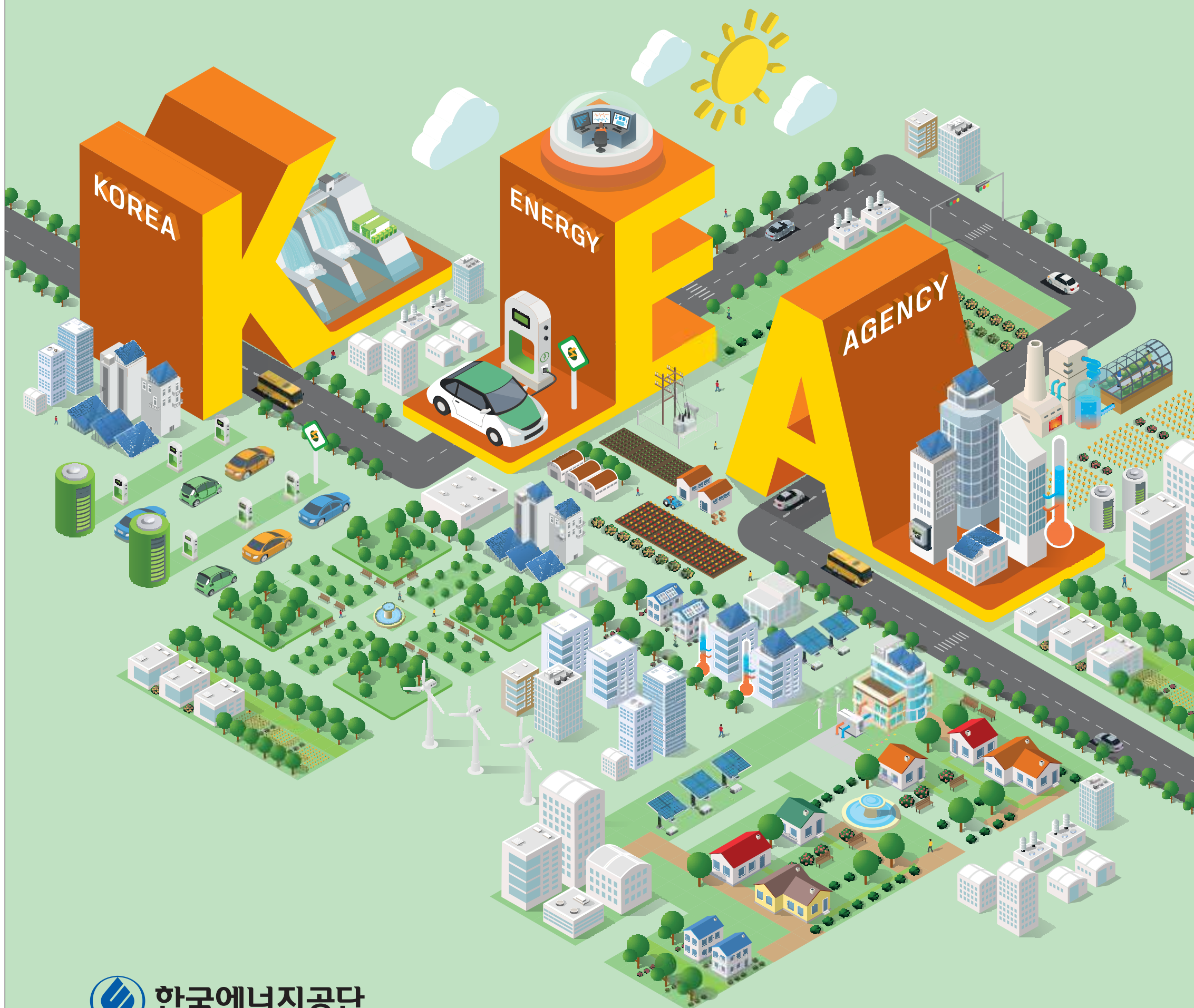
방과, 역설, 직원문서, 코드 등 다양한 문서를 지원하며, 웹 오피스입니다. 이제 어디서든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관리

조직도를 통한 직원명세, 수많은 가져치,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업데이트/공유,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 다이어트’…전기차 조기 전환 속도

부진한 ‘내연기관 모델’ 과감한 단종 전략 검토
폭스바겐도 ‘비틀’ 접어…기아차, 로고 변경 예정

현대·기아자동차가 내년부터 시작될 ‘신차 기근’에 대비해 제품군을 축소한다. 사실상 ‘모델 노후화’ 초기에 진입하는 만큼, 돈이 되는 차만 남기고 과감하게 단종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영업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전동화 작업의 ‘조기 추진’도 검토 중이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내년부터 시작될 신차 기근에 대비해 ‘영업이익 방어’ 전략을 수립 중이다.

앞서 현대차는 2019년부터 잇따라 새 모델을 출시하면서 신차효과를 누리고 있다. 기아차 역시 올해부터 대대적 신차 교체 주기에 접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졌음에도 주요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런 신차 효과 덕이다. 완성차는 등급과 시장경쟁 구도에

따라쫓게는 5~7년, 길게는 10년마다 신차를 내놓는데 각기 다른 교체 주기를 지닌 현대·기아차의 주력 새 모델이 공교롭게도 2019~2020년에 집중적으로 맞물렸다. 신차 출시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현대차 싼타페(부분변경)와 투싼, 기아차 카니발 등 주력 모델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2년 동안 집중해 신차가 쏟아지는 만큼, 이들 교체 주기가 종료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신차 절벽이 시작된다. 이른바 ‘모델 노후화’ 초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2021~2023년 별다른 신차를 내놓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모델 노후화=인센티브(할인) 확대’라는 등식이 성립하면서 영업이익 방어 전략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기반 콘셉트카. 왼쪽부터 현대차 ‘프로페시’·기아차 ‘이매진 바이 기아’.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 ‘제품군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때 ‘이미지 리더’ 역할을 맡았던 일부 차종도 판매가 부진하면 과감하게 단종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현대차는 소형차급인 엑센트, 기아차는 프라이드 국내 판매를 중단했다.

이런 단종 전략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메이커도 속속 단행 중이다. 독일 폭스바겐은 판매 부진을 이유로 상징적이었던 ‘뉴 비틀’을 단종했다. ‘브람 쇼트’ 아우디

CEO도 작년 11월 “현재 판매 중인 완성차 제품군도 최대 30%를 단종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렉서스 역시 판매 부진을 이유로 스포츠 세단 GS 단종을 앞두고 있다.

신차 기근 시기에 맞춰 전동화 전략도 강화한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는 “내년께 전동화 플랫폼이 완성되면 전체 라인업의 전동화가 가능해진다”며 “내연기관이 추가 개발보다 전동화 전환 비용이 유리한 만큼, 주요 시장별로 전기차 라인

업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남기고, 신차 기근은 전기차 출시로 맞대응한다는 뜻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 각각 2025년까지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 중”이라며 “특히 기아차는 브랜드 로고까지 전기차 시대에 맞춰 변경하는 등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화학, 美 배터리 공장 재가동

국내 3사 점유율 확대 총력
삼성SDI, 현대차와 개발 협력
SK이노, 8900억 출자 美 증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췄던 LG화학의 미국 배터리 공장이 최근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11일부터 재가동했다. 앞서 3월 미시간 주 정부의 ‘시민 자택 대기’ 행정명령에 따라 공장 가동을 멈춘 지 2개월여 만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주 정부의 허가가 나와 11일부터 재가동했다”며 “현재 공장을 완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M과 합작해 만들기로 한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은 올해 중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럽에 있는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화학 폴란드 법인은 최근 SNS에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올렸다. 기계·자동차·전자제품 관련한 유지관리 기술자를 뽑을 계획이다. 이 법인은 코로나19 관련해 폴란드 정부에 진단기 1만 개, 브로츠와프 병원에 마스크 2000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SDI,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생산

확대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본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춤 가운데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중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37.5%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삼성SDI는 최근 현대차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하는 배터리다.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용량이 크고 안정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5년 뒤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두 번째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7억2700만 달러(약 8900억 원)를 출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연간 배터리 생산능력 1.7기가와트시(GWh)였던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말 생산능력을 4.7GWh로 두 배 넘게 늘렸다. 지난해 말 중국과 헝가리에 각각 7.5GWh 규모의 공장을 세워 현재는 총 생산능력이 19.7GWh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중국과 헝가리 공장을 점진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총 생산능력 71GWh 규모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본사 로비에 ‘모빌리티’ 청사진 선보인 현대차

내달까지 비행체 조형물 전시
구성원에 미래 비전 고취 차원

현대자동차가 본사 1층 로비에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Hub(모빌리티 환승 거점)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축소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 구성원에게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으로 거듭나기 위한 회사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다.

내달 12일까지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주요 글로벌 행사에 전시해 전 세계 고객에게도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전시물은 실물 8분의 1 크기로 디테일을 강조해 제작됐고, UAM과 PBV, Hub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현대차가 실현할 미래 이동성 개념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

Hub 위에 설치된 이착륙장에는 하늘

을 나는 이동수단인 UAM이 위치했고, 지상에는 7가지 개인화 용도로 제작된 PBV가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PBV 모형은 실제로 Hub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Hub의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에 연결돼 건물 일부가 되는 모습을 연출한다. UAM은 8개의 프로펠러가 틸팅(이착륙 시에는 수직으로, 전진 비행 시에는 수평으로 전환되는 기능) 및 회전하며 생동감 있게 비행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유창욱 기자 woogi@



LG전자가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쓸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했다. 사진은 간편 키트를 활용한 이동식 에어컨 설치 방법. 사진제공 LG전자

“어디든지 시원하게”…LG 이동식 에어컨 출시

69만원대부터…저소음 냉방

LG전자가 집안의 원하는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한다.

LG전자는 19~28일 LG 이동식 에어컨 예약판매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판매는 29일부터 시작한다. LG 이동식 에어컨은 주방, 공부방 등 집안 여러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실외기 설치가 어려운 공간이나 벽에 구멍을

뚫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용하다.

신제품은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를 도입했다. 한 번에 더욱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냉방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기존 정속형 모델(LW-C062PEW)보다 하루 4시간 사용기준 에너지를 최대 29% 절약할 수 있다.

냉방면적은 26㎡(약 8평)로 냉방, 송풍, 제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바람세기 약품에서 정음모드를 사용할 경우 소음

이 42dB(데시벨)에 불과한 저소음 냉방을 구현했다.

고객이 직접 이동식 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창틀을 고려해 간편설치 키트를 기본 제공한다. 고객은 에어컨을 이용하려는 공간의 창문을 조금 열어 설치 키트를 설치한 후 더운 바람을 내보내는 배관을 연결하면 된다.

무선인터넷을 도입한 모델은 LG 씽큐, 구글 어시스턴트, 네이버 클로바 등과 같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원격으로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신제품 가격은 출하가 기준 무선인터넷 탑재 모델이 74만9000원, 일반 모델이 69만9000원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온라인 GSAT 부정행위 시 5년간 지원 못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GSAT를 시행하는 삼성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예방책을 시행한다.

17일 삼성에 따르면 온라인 GSAT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검증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지원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한다. 부정행위는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신분증 및 증빙서류 위·변조 △문제 메모 및 촬영 △문제 일부 또는 전부 유출 등이다.

온라인 GSAT 실시일인 30~31일보다 일주일 앞서 응시자들의 접속 시스템을 점

검하기 위해 예비 소집도 실시한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휴대폰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한 채로 시험을 봐야 한다.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된다.

시험은 30~31일 이틀간 4회에 나눠서 진행한다. 4회 시험 문제는 모두 다르게 낸다. 사후 검증 절차도 뒀다. 온라인 시험이 끝난 후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한다. 면접 때는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약식 시험도 시행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네이버 GIO〉

〈카카오 의장〉

이해진 vs 김범수 ‘금융’ 맞대결… 시장 판도 바꿀까

이해진과 김범수가 금융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펼친다.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 부분에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두 회사는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확보한 이용자 층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선 두 회사가 ‘금융 시장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말 ‘네이버통장’을 선보이며 금융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출범하며 금융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네이버 통장 외에 네이버페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CIC를 분사해 설립한 만큼 생활 금융에서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네이버통장 역시 네이버페이와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통장 가입자들은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연 3%(100만 원 이내, 세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전월 네이버페이 결제 실적이 월 10만 원 이상일



이해진 GIO



이달 말 ‘네이버 통장’ 출시
주식·보험·신용카드·대출 등
순차적으로 서비스 확대

경우 연 3%, 월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 수익률이 적용된다. 타행 송금 서비스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네이버는 국내보다 해외시장에서 금융 경쟁력을 키워왔다. 일본 ‘라인’이 대표적인데, 라인은 지난해 7월 대만 금융 감독위원회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는 행 현지 법인과 함께 디지털 뱅크 사업을 진행하며, 태국에서는 현지 은행과 합작회사를 세워 금융에 진출했다.

해외 금융서비스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국내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통장 이후에는 주식, 보험, 신용카드,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 고유 업무인 대출사업에 직접 뛰어 들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공개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연체채권 관리분야 경력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미 시중은행과 카드사 외에 카카오뱅크 직원들도 이 자리에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분기 거래액이 14조30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다. 또한 2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후 시작한 증권계좌 업그레이드에는 100만



김범수 의장



카카오페이 1분기 거래액 14조
카뱅 1200만 고객 ‘승승장구’
일본·동남아 등 해외진출 활발

명의 이용자가 몰렸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의 메기를 넘어 고래를 노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1200만 고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8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81.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연간 순이익 137억 원을 1분기 만에 뛰어넘었다. 총자산은 3월 말 기준 23조4000억 원, 순이익 21조3000억 원, 여신액은 16조7000억 원이다.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54%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국내 시장의 성과를 발판 삼아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일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와 연계하는 등 해외 결제처를 늘리고 있다. 또,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고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업계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시장 전체 판도를 크게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게다가 두 회사가 제공할 금융 분야가 겹쳐, 향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간편결제에 이어 본격적인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시작했다”며 “각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겹칠 수 있는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나트라케어’ 파동에 경쟁 생리대는 반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기능 생리대로 유명한 ‘나트라케어’에 대해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했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들 이 대체품 찾기에 나섰다. 유기능 생리대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얻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최근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에도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나트라케어는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란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나트라케어 제조사인 한국법인 바디와이즈아시아는 다르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올리브영 등 유통업체들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다. 올리브영은 7일부터 판매를 중단했고, 구매 3개월 전 제품까지 고객이 영수증과 제품을 갖고 방문하면 환불 처리해주고 있다.

나트라케어가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제외되면서 그간 나트라케어를 써오



쏘피의 ‘자연의 색 무표백 속커버’ 생리대.

대체품 찾는 소비자 늘며
‘라엘’ ‘오드리션’ ‘쏘피’ 등
유기능 생리대 브랜드 매출 ↑

던 고객들은 대체품 찾기에 나섰다. 여성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트라케어 대체품을 찾는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예컨대 이달 9일 네이버 뷰티 카페 파워더머에는 나트라케어만 썩 써왔다고 밝힌 회원이 대체품으로 쓴 생리대를 추천한다는 글이 게재됐고, 국내외 유기능 브랜드를 추천하는 댓글이 7개 달렸다.

생리대 업체들은 나트라케어의 빈자리를 파고들며 반사이익을 챙기고 있다. 대표적 업체가 미국 아마존 생리대

분야 판매 1위를 기록한 ‘라엘’이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국계 여성 3명이 창업한 브랜드로 지난해 12월 올리브영에 입점했다.

‘유기능 순면 커버’를 앞세운 라엘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라엘 온라인 몰에서 생리대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라엘에 따르면 행사 시작 뒤 온라인몰 유입률이 전주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 구매 고객 중에는 이번 행사에서 라엘 제품을 처음 산 신규 고객이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지유니참의 여성용품 브랜드 쏘피도 혜택을 보고 있다. 엘지유니참 측은 이달 유기능 라인업 전체 제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 출시한 무표백 속커버의 매출이 전체 매출 성장상을 견인했다. 특히 쏘피는 나트라케어 파동이 난 뒤 14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매출액이 43% 증가했다.

100% 유기능 재료로 만든 생리대를 주력으로 내세운 오드리션도 나트라케어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 오드리션은 최근 올리브영과 입점 계약을 맺고, 이달 중으로 입점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소상공인 61% “올해 정부지원책 이용한 적 없다”

미활용 사유 “있는 줄 몰라” 최대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6곳은 제로페이를 비롯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올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 17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61.4%가 올해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았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했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활용

한 지원책은 ‘노란우산공제’ (32.2%)였다.

이어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소상공인특화자금(0.8%) △백년가게 육성사업(0.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 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 (40.0%)였다.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14.4%)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12.4%)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8.4%로, 이 중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KT·게이츠 재단 ‘차세대 방역 연구’ 맞손

ICT 감염병 대응 3년간 120억 투자... 게이츠 재단 50% 지원

KT가 3년간 120억 원 규모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받는다.

17일 KT에 따르면 차세대 방역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 조기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게이츠 재단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펀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KT는 신뢰도 높은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해 고려대학교의료원 김우주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모바일닥터, 메디블록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고려대의료원은 독감 감시체계 운영 및 병원체 유전자 서열 분석을 진행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독감 유입 및 유행 예측 모델링을 개발한다. 모바일닥터는 앱 기반 독

감 진단 데이터 분석을, 메디블록은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플랫폼 개발을 담당한다.

KT는 첫 번째 과제로 모바일 닥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독감 유사 증상을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앱은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측정된 이용자의 체온, 독감 증상 등을 저장한다. 이후 앱에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독감 가능성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KT는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구 이동 이력과 독감 유전체 검사 데이터, 독감 유행지역을 분석해 독감 확산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지역별 독감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독감 시즌 예측 모델도 개발한다.

김우람 기자 hura@

가구업계 “소파·침대, 인터넷으로 구매하세요”

신제품 선공개·사은품 증정 행사
언택트 소비 확대에 온라인 강화



일룸이 온라인을 통해 선공개한 소파 ‘코펜하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증가하자 가구업계도 온라인 채널을 공략, 매출 확대를 위해 공들이고 있다. 가구는 통상적으로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보고 구매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속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몰을 통한 구매가 늘고 있어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구업체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할인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에넥스는 최근 서랍이 결합된 형태의 신규 붙박이장 2종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개했다. 에넥스는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하면 스타일라장, 내부 거울, 옷장들 등을 무료 증정하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용 제품을 따로 내놓거나, 신제품

을 온라인에 선공개하는 곳도 늘었다. 현대리바트는 온라인 몰을 통해 프리미엄 매트리스 ‘엔슬립 E7’을 선보였다. 일룸은 소파 ‘코펜하겐’의 새로운 색상을 출시하며 온라인 사전 판매 이벤트를 열었다. 온라인 몰을 통해 소파를 100조 한정으로 오프라인보다 먼저 출시하고, 구입할 경우 사이드 테이블을 증정하는 이벤트다. 후기를 남기면 백화점 상품권도 추가로 증정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해오던 기존 업체들은 이미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쓸쓸한 재미를 보고 있다. 매트리스업체 지누스는 2009년 미국 아마존에 입점해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다. 특히 압축 기술을 매트리스에 적용, 상자에 담아 택배 배송을 하면서 판매량 1위에 오른 바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먹방 마케팅... ‘모바일 소통’에 빠진 회장님

함영준 오투기 회장, 유튜브서 자사제품 솔직 먹방 댓글몰이
정용진 부회장·조운호 사장 등 SNS 소통 ‘新마케팅’ 창구로

‘회장님’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다. 묵직한 책상 위에 가득 쌓인 서류 파일 속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꾸짖거나, 소통보다 명령에 익숙한 ‘회장’의 이미지가 달라졌다.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기업들 역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 마케팅과 유튜브 채널 개설이 한창이다. 초기 SNS·유튜브 마케팅이 기업을 알리기 위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 유통업계는 기업의 수장이 직접 등장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행보가 늘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대표적이다. 그는 방송활동뿐 아니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음식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다. 채널에선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직접 홍보하지 않지만, 그의 활발한 활동으로 쌓인 신뢰도와 호감도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한식 전문점 브랜드 50개에서 더본코리아 브랜

드 2개가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백 대표처럼 직접 소비자와 소통에 나선 유통업계 수장이 늘고 있다.

함영준 오투기 회장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는 장녀 함영지 씨의 유튜브 채널 ‘햄연지’에 어버이날 특집으로 출연해 자사 제품을 알렸다.

함 회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햄연지 아빠 함영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함 회장은 이날 연지 씨가 어버이날을 맞아 오투기 제품을 활용해 만든 ‘크림스프 리조또’와 ‘철판돼지 찜짜면’을 맛보며 솔직한 소감을 전했다. 먼저 ‘크림스프 리조또’를 맛본 함 회장은 “치즈를 많이 넣은 본래의 레시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 힘들다”며 “오투기 크림스프라면 편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진짜라’를 활용한 ‘철판돼지 찜짜면’을 시식한 후 “진짜 맛있다”며 “파김치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오투기 회장님’의 꾸밈 없는 감성평은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냈다. 한 누리꾼은 “사랑이 넘치고 반듯한 아빠로



정용진(왼쪽) 신세계 부회장과 함영준 오투기 회장

부끄러움 없는 사람만이 반듯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개인 SNS를 활용한 ‘소통 경영’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공유하고 때로는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적극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지난해 2월 이마트가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의 영상과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홍보했고, 지난해 8월에는 SSG닷컴의 새 광고 두 건을 공개 예정일보다 하루 먼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속세권’이라는 태그를 붙여 올린 영상은 공개 3시간 만에 조회수 2만5000건

을 넘어서며 관심을 모았다.

최근 정 부회장은 백종원 대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상품성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강원도 못난이 감자와 못난이 왕고구마의 판로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마트와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판매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자와 고구마를 요리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직접 올려 판매 촉진에도 힘썼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유행하기 시작한 덕분에챌린지, 플라워버킷챌린지 참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등 정 부회장의 친근한 행보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를 이끌고 있는 조운호 사장은 소비자와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조 사장은 수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고객 소통을 위한 창구로 꾸준히 활용해 왔다. 지난해에는 ‘블랙보리’ 출시 2주년을 기념해 아이돌그룹 팬들에게 음료 지원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 사장은 최근 ‘블랙보리’ 1억 병 판매 돌파 기념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에게 직접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블랙보리 1억 병 돌파 반짝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트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며 “열 분에게 블랙보리 1박스 드리는 약속을 또 못 지키고 열다섯 분께 보내기로 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조 사장은 “(이벤트) 수상자 명단 확인하시고 수령자 정보 개인 디엠(direct mail) 주세요”라며 언제든지 고객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소통 행렬은 밀레니얼의 소비 영향력 확대에 따라 점차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가 중요한 유통업계에서 소통하는 CEO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이라며 “브랜드 얼굴인 CEO의 친숙한 이미지는 소비가 얼어붙은 최근 불황을 극복할 열쇠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안경무 기자 noglasses@

골프용품에 샷포 보당 와인까지 등장한 편의점

GS25·CU 등 ‘재난지원금 특수’ 겨냥 프리미엄 상품 전진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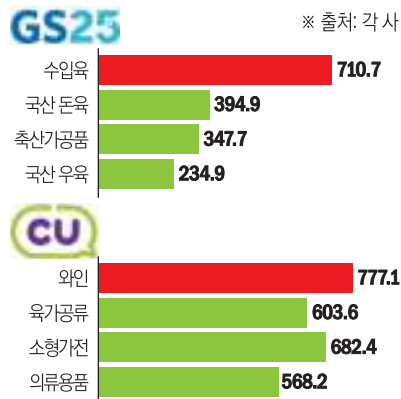
5월 들어 편의점들이 골프용품부터 샷인마토 등 취급 상품을 속속 확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종합 소매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에 따르면 이달 초 국내 대표 골프 브랜드 볼빅(Volvik)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편의점 GS25에 주요 골프 용품을 21일부터 업계 단독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GS25가 이번에 단독으로 선보이는 볼빅 상품은 △프리미엄 VIVID 컬러 골프공 2종 △골프 장갑 △리그네티 등 골프용품 4종을 포함한 총 6종이다.

GS25는 지난달 말에는 ‘샷인마토’를 내놔다. 일명 ‘단마토’로 유명한 이 상품은 단맛을 극대화한 이색 토마토 품종으로 200g에 5500원으로 평균 2000~3000원대인 편의점 과일 대비 고가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씨유)는 19일부터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의 대표 상품인 ‘쥬얼드키위’를 출시하며 고가 과일 라인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내 IPTV 시장 약 45%를 점유한 올레tv 프리페

편의점 지역화폐 결제 상위 품목
(단위: %, 전월 대비, 4월 제로페이·코나카드 사용 기준)
※ 출처: 각 사



이드(Prepaid) 상품권도 출시했다. 이 상품권은 유료 VOD를 구입한 금액만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선불형 상품으로 5000원권과 1만 원권, 2만 원권, 3만 원권 등 총 4종이다.

이마트24는 3만9800원짜리 2001년 산 샷포 보당 와인을 내놔다.

편의점들이 종합 생활 소매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취급품목 확대가 필수다. 하지만 최근의 취급품목 확대에 대한 속내는 따로 있다. 이커머스과 대형마트, 백화점과 달리 정부의 재난 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되면서 고가 제품 소비 유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던 4월 한 달 동안 GS25에서 제로페이와 코나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을 분석해 본 결과 수입육(전월 대비 710.7%)과 국산돈육(394.9%), 축산가공(347.7%), 국산 쇠고기(234.9%) 등 축산품의 결제가 높았다. 제로페이와 코나카드 결제 매출이 94.8% 오른 가운데 이들 품목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비교적 고가 제품이나 생활 잡화 등으로 재난지원금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CU와 역시 제로페이와 코나카드 결제액이 전월에 비해 각각 6배 뛴 가운데 와인(777.1%)과 육가공류(603.6%) 등의 매출이 급증했다. 세븐일레븐은 제로페이 사용액이 3월에 비해 4배 늘었다.

특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3조 원 규모로 지자체에 비해 규모가 큰데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만 해 편의점 업계의 마음이 급하다.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면서 생활 잡화 분야에서는 경쟁자마저 줄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되면서 이를 대비해 품목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안심 도시락’으로 간편한 한 끼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60가지 프리미엄 도시락을 한데 모아 편집 매장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간편식과 배달음식에 지친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세계 강남점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으며 본점의 경우도 10~20% 도시락 수요가 증가했다.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 바이어와 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에서 엄선해 기준을 높였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롯데백, 中企 패션기업과 상생 박람회

마진을 내리고 대금 조기지급

롯데백화점은 국내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고 중소 패션기업들의 상품 소진을 위한 ‘상생 나눔’을 테마로 봄 신상품을 할인하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코로나로 멈춘 유통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생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파트너사는 중소 패션기업으로 구성됐다. 2020년 S/S(봄/여름) 신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월 물량을 높은 할인율에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20일부터 24일까지 파트너사와 함께 ‘상생 나눔 박람회’를 전국 주요 6개 거점 점포인 롯데백화점 본점, 노원점·인천터미널점·부산점·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아울렛 수원점에서 개최한다.

상생과 나눔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인 만큼 롯데백화점에서는 참여하는 중소 파트너사에 3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박람회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특별 마진을 적용해 백화점 파트너사의 경우 기존

마진 대비 최대 50% 하향 조정된다. 낮은 마진율만큼 입점 파트너사의 이익이 올라가게 된다.

판매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 기간 내 판매된 상품대금은 6월 10일까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자금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에는 동반성장 기금을 지원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1000억 원의 동반성장 기금 중 지원을 요청하는 파트너사별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9층 행사장에서 나들이 시즌 스포츠 의류·슈즈와 아웃도어 행사 상품을 선보인다. 캐주얼 슈즈 브랜드 ‘크룩스’는 이월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재욱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파트너사의 재고 소진 및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상생 박람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세븐일레븐, 농가 돕기 ‘무안 햅양파’ 판매

세븐앱 예약주문 전용 메뉴 신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 돕기 프로젝트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농가 돕기 프로젝트 2탄으로 ‘무안 햅양파’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전남 무안군 지역 양파 농가에서 생산된 양파를 27일까지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한다.

‘무안 햅양파 1kg(2100원)’, ‘무안 햅양파 2.5kg(5100원)’ 2종으로 시중가 대비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지역 농산물 판매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세븐앱 내 전용 메뉴 ‘세븐팜(Seven Farm)’을 신설했다.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예약주문’ 메뉴 ‘세븐팜’ 코너에서 무안 햅양파를 예약 주문하고 수령 희망 점포와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세븐일레븐은 4월 말 경북 영천시와 협업을 통해 ‘간마늘 1kg’ 상품을 특가에 선보였다. 강지연 세븐일레븐 신선식품팀 담당MD는 “편의점과 농가의 상생 프로세스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고위험 ETF·ETN, 투자 문턱 높아진다

금융위 ‘시장 전전화 방안’ 발표
예탁금 1000만원 내고 교육 필수
증권사는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
업계 “진입장벽에 시장 위축 불가피”

고위험 상장지수상품(ETP)의 투자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예탁금 1000만 원을 내고, 상품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 ETN의 기초 자산과 시장 가격의 차이(괴리율)를 줄여야 하는 증권사 의무가 강화된다. 원유 등 원자재 중심의 ETN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ETN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TF·ETN 시장 전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 등에 대한 투기 광풍으로 투자 위험성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경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그동안 증권사·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투

상장지수상품 (ETP, ETF+ETN) 시장 전전화 방안 개요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추진 시기
	과도한 투기 수요 억제	레버리지ETF·ETN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마련	하반기
		레버리지ETF·ETN의 기본예탁금 도입	9월
		레버리지ETF·ETN의 사전교육 의무화 ETN 액면병합제도 도입	9월 9월
	괴리율 관리 효율성 제고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 강화	9월
		ETN발행사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	7월
		ETN발행사의 최소 물량 보유 의무 도입	7월
		ETN 조기정산 허용	7월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	긴급 상황시 ETN 적시 공급 체계 마련	9월
		시장대표지수 ETN 허용	7월
		해외주식 직구수요 흡수를 위한 ETN 출시	7월
		ETN 자산상장폐지 요건 완화	7월

※ 출처: 금융위원회

자경보, 거래정지 등의 조치에도 투기 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빚낸 투자 제한… LP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 = 이 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ETP(ETF·ETN)는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돼 별도 시장에서 관리받게 된다. 9월부터 레버리지 ETP에 새로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 원도 내야 한다. 또 신용거래가 불가하고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해 사실상 빚낸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상품 매수 전에는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된다. 지표가치 하락 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가수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괴리율 관리가 더욱 철저해진다. 거래소는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쉽게 해 단일가 거래 변경, 거래정지 등으로 괴리율 확대를 조기 차단한다.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는 괴리율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LP 평가기간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LP는 ETN 물량을 최소 20% 보유해야 한다. 의무투

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ETN 조기정산도 가능해진다. 긴급 상황 시 LP가 신속하게 ETN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양한 ETN을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특정상품 쏠림현상도 완화한다.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막아뒀던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대표지수의 ETN 출시가 허용된다. 또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 산출도 가능해진다.

또 상장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출이 부진한 ETN은 자산 상장폐지를 허용해 신규 상품 출시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7·9월 나눠 시행… 업계 “ELW 전철 밟을 가능성 커” =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은 시장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자본시장 법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기본예탁금 도입 등 진입장

벽 높이가 ETP 시장의 성장세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동일한 규모로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예탁금 도입 등 투자 진입장벽이 다소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과열을 단기간 안에 잠재우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분명해 보이지만 레버리지 ETP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영역임이 분명한데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과거 ELW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당국은 시장 정상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김 정책관은 “이번 방안으로 단기적인 시장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ETP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ETP 시장이 건전화하면 오히려 균형 있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원유선물·부동산·파생상품… 잇단 소송 증권업계 주요 수익원 ‘애물단지’ 전략

큰 인기를 끌며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상품들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렸다. 법적 공방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KODEX WTI원유선물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 220명은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펀드는 지난 달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며 수익률이 반토막 났다.

투자자들은 운용사의 갑작스러운 월물 교체로 손실을 봤고, 이마저도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삼성자산운용은 법부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의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6월물의 정산가(종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금액 전액을 잃게 되고 거래중단 및

상장폐지로 손실이 커질 수 있었다”며 “집합투자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해외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 역시 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의 고급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겪었다. 지난해 9월 소유주인 중국 안방보험에 총 58억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호텔 15곳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억8000만 달러를 선납부하고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소유권 등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6개의 호텔이 안방보험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안방보험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계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은 8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위너스자산운용과 KB증권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니케이지수 급락으로 발생한 800억 원 규모 파생상품 손실을 둘러싸고 맞소송에 들어갔다. KTB자산운용도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둘러싸고 미국 TCA자산운용과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증권업계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파생상품과 부동산의 경우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만큼 향후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업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1TV에 게재됐습니다

유동부채 36% 줄여… 체질 개선 ‘시동’

상장사 재무 분석

소리바다

소리바다가 올해 들어 유동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1분기 유동부채는 186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6.06% 감소했다. 기존 292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줄어든 수치로, 대부분은 전환사채에서 비롯됐다.

지난해까지 소리바다에 186억 원의 전환사채가 물량으로 남아 있었지만 올 들어 전환청구권 행사로 사채 총액이 40억 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다시 50억 원 규모의 전

소리바다 재무현황

(단위: 억 원)

	2018년	2019년 1Q
유동자산	135	172
유동부채	292	186
부채총액	332	230
자본총액	227	415

※ 출처: 금융원 전자공시

환사채를 발행하면서 1분기 기준 전환사채는 88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소리바다의 전환사채가 전체 유동부채의 60%를 상회했던 만큼, 전환사채의 감소로 유동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소리바다의 유동비율은 지난해 46.42%에서 올해 92.49%까지 올랐다.

전환청구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부채가 줄어든 대신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증가했다. 그 결과 전체 자본은 41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무려 83.24% 늘어났다.

연이은 순손실로 결손금이 500억 원대로 불어났지만 주식발행초과금 증가가 이를 상쇄했고, 덕분에 부채비율도 55.35%로 급감했다. 앞서 지난해 소리바다의 부채비율은 145.34%까지 치솟았다.

실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연결 영업손실 75억 원과 당기순손실 129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체결했던 삼성뮤직 서비스의 위탁 운영이 종료됐고, 종속회사의 영업권 손상자손이 반영되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

올해 1분기 역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각각 30억 원, 4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경영진도 “지분 매각, 현금 확보”

코로나에 증시 불확실성 커져
“주가 오를때 팔자” 매도 러시

최근 주가가 빠르게 회복한 상장사 중심으로 경영진들이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진도 주주 입장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N한국사이버결제의 박준석 대표이사, 정승규 부사장은 7일 각각 7만 주를 9236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같은 달 11일, 13일에 걸쳐 4만 주를 주당 4만 4000~4만 8000원에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따라 두 경영진은 스톡옵션 행사로 각각 19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NHN한국사이버결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급증하자 관련 수혜주로 여여 주가가 급등했다. 올 초 2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15일 5만 6800원으로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마니커에프앤지의 최대주주인 팜스토리 역시 11~12일 1만 659원에 78만 5066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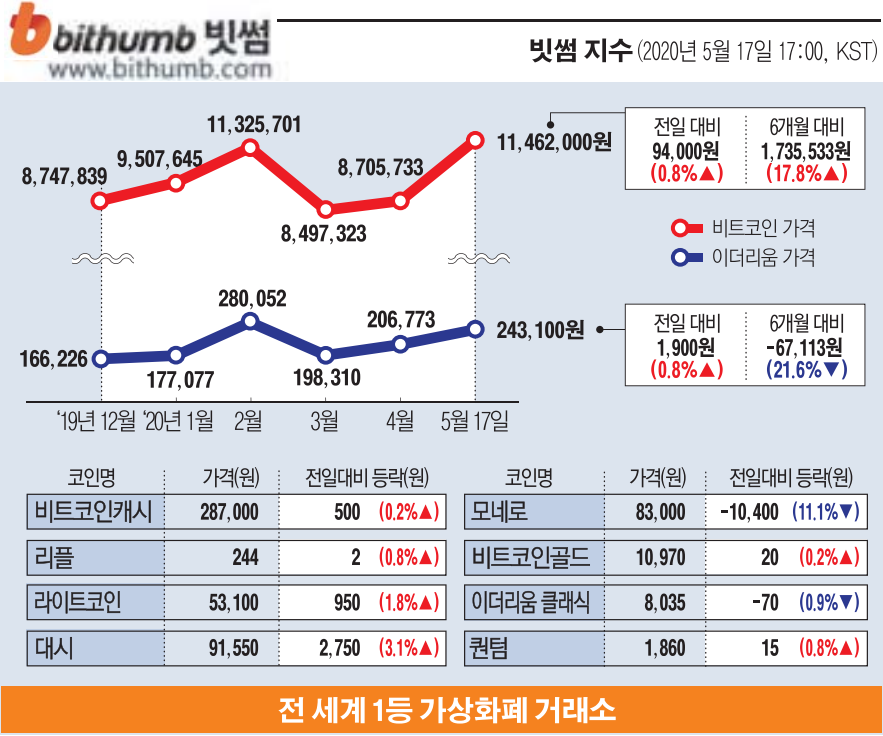
장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매도로 팜스토리 지분율은 7.29%포인트 떨어진 49.12%로 낮아졌다. 팜스토리는 올해 2월부터 마니커에프앤지 지분 낮추기에 주력하며 총 208억 원을 현금화한 상태다.

마니커에프앤지 주가 역시 코로나19발 유행대란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회사 측은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주가 방향에 따라 마니커에프앤지 주식을 장내 매도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스테믹스의 최대주주 리더스코스메틱은 13일 자로 보유 중인 프로스테믹스 주식 24만 7500주를 4158원에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지분을 넘겼다고 공시했다. 최근 프로스테믹스는 커피어 그레인 유래 미세 소포체 용도와 관련해 특허를 취득했는데, 해당 특허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바 있다.

이처럼 상장사 최대주주, 경영진들의 지분 매도가 증시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현금 확보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상장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내세워 유형 자산,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난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정희 기자 ljh@



〈금천·관악·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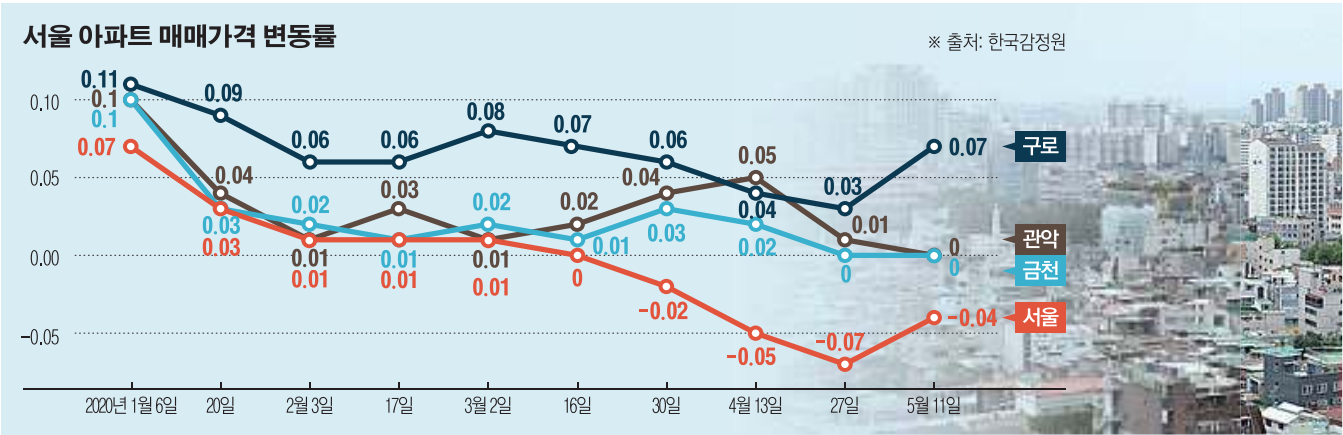
강남 집값 하락세 속 ‘금·관·구’는 신고가 행진

‘중저가’ 저평가 인식에 실수요 몰려
교통호재·준공업지역 개발 기대감도
구로 ‘우리유엔미’ 전용 59㎡ 1억 쏙
대출규제 풍선효과 ‘노도강’은 하락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금천, 관악, 구로 등 외곽지역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워낙 가격이 낮은 탓에 부동산 침체 영향을 덜 받고 있는 데다 교통 호재와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04% 하락한 가운데 구로구(0.07%)가 유일하게 상승했다. 12·16 대책 이후 강남4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로구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민간 통계인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5월 둘째주 구로구는 0.08% 올랐으며 관악구도 구로구(0.08%)와 함께 0.07% 올랐



다. 최근 보험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인근 금천구도 올해 들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택시장은 5월 들어 법인 주택 거래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규제가 나오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라면서 “그러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구로와 관악 등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도 다수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

면 구로동 럭키아파트 전용면적 71.4㎡는 11일 5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 4억7800만 원에 거래된 뒤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현재 이 아파트는 호가가 5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구로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4.57㎡도 8일 5억49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중앙하이츠 전용면적 82.30㎡는 이달 초 6억45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그간 거래 물량이 없던 구로구 우리유엔미 전용면적 59.45㎡는 2년여 만에 1억 원이 오른 4억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구로동뿐 아니라 금천구 시흥동 럭키남 서울아파트도 전용면적 49.79㎡가 7일 5억53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관악구 신림현대 전용면적 105.36㎡도 10일 최고가인 7억3700만 원에 거래됐다. 관악 산후면시아2단지 전용면적 82.65㎡는 이달 초 5억1500만 원으로 처음으로 5억 원대에 거래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강남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강북지역까지 번지면서 정부의 대출규제로 풍선효과를 누렸던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해왔

다. 실제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와 함께 풍선효과를 누렸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금관구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신안산선과 신림선, 서부선 등 교통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정부가 공공개발 계획까지 내놓았다.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7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3% 수준인 19.98㎢가 지정돼 있는데 영등포구가 5.0㎢로 가장 넓고 구로구가 4.3㎢, 금천구가 4.1㎢, 성동구는 2.0㎢ 등이다.

구로구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호재로 볼 수는 없고 워낙 가격이 싸 추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시세차익 10억...강남 ‘로또 단지’ 또 나온다

서울 강남에서 주변 시세와 10억 원가량의 차이가 예상되는 ‘로또 분양’ 단지가 이달 또다시 등장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잠원동 신반포13차 단지를 재건축(조감도)하는 새 아파트가 이달 분양시장에 나온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는다. 이미 2월 시작한 철거작업을 4월 초 완료했지만 일정 지연으로 이달 말께나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신반포13차는 총 330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10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한강공원이 가깝고,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서초 ‘신반포13차’ 이달 말 분양
분양가는 3.3㎡에 4800만원대
청약가점 최소 60점 넘어야 ‘안정’

노른자 단지다.

분양가는 앞서 3월 먼저 나온 ‘르엘 신반포’ (옛 신반포14차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르엘 신반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849만 원으로 전용 59㎡ 주택형이 10억9500만~12억3000만 원, 전용 84㎡의 경우 14억8300만~16억7200만 원 수준으로 매겨졌다.

최근 시세 기준으로 보면 신반포13차 인

근에 위치한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2016년 입주) 전용 84㎡ (23억~25억5000만 원)와의 시세 차이는 무려 10억 원 안팎에 달한다. 바로 옆 단지인 ‘래미안신반포 리오센트’ 전용 84㎡ 시세 (24억3000만~28억5000만 원)와는 10억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단지 인근 G공인 관계자는 “분양가는 앞서 나온 르엘 신반포와 비슷한 수준인 4900만 원 밑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강남 집값이 주춤세인 와중에도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워낙 낮다보니 인



근 신축 아파트와 갭이 상당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신반포13차 역시 청약가점이 최소 60점은 훌쩍 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르엘 신반포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최고 408대 1에 달했다. 평균 경쟁률 역시 67가구 모집에 8358명이 청약에 신

청하면서 124대1의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던 전용 59㎡의 경우 최저 당첨가점이 69점으로 70점에 육박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와 84㎡ 모두 최저 가점이 67~69점에 달했다. 실물 견본주택은 물론 사이버 견본주택조차 열지 않고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잠원동 일대 A공인 측은 “이번 단지는 주변 신축 대비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지만 입지가 뛰어나 청약 수요가 적진 않을 것”이라며 “7월 이후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새 아파트가 가뭄에 콩 나듯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약재에도 강남권 청약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브랜드의 힘... ‘포레나 거제 장평’ 완판

한화건설, 포레나 브랜드 론칭後 6개 단지 연속 매진

한화건설은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대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포레나 거제 장평(조감도)’이 완판(100% 예약)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817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총 359가구다. 2018년 10월 처음 분양했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거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다수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한화건설이 지난해 새롭게 내놓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로 단지명을 변경하고 분양 조건을 개선하면서 계약률은 빠르게 상승했다.

송희웅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포레나 거제 장평 아파트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직주근접 아파트로 거제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곳”이라며 “포레나로 브랜드를 변경한 뒤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인식이 높아진 데다 거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하면서 단기간에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천안에선 1순위 청약에서 미분양이 예상됐던 ‘포레나 천안 두정’이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화건설은 미분양 관리지역인 천안에서 3개월 만에 완판한 원동력 역시 브랜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포레나 거제 장평의 완판으로 한화건설은 작년 8월 포레나 브랜드 론칭 이래 6개 단지가 연속 매진되는 기록을 쓰게 됐다. 계속되는 브랜드 변경 요청에 기존 분양 단지 10곳(6674가구)의 브랜드도 포레나로 변경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셋째 주엔 올해 들어 가장 큰 청약시장이 열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전매 규제 강화 영향으로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고 있어서다. 전국적으로 9400여 가구가 청약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총 13개 단지, 9418가구(일반 분양 556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리버파크 자이’,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7개 단지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 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 포레자이’, 대구 북구 고성동1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피라’ 오피스텔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계약을 하는 단지는 15곳이다. 경기 수

원시 조원동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 더 퍼스트 시흥’, 대전 유성구 둔곡동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 1·2단지’ 등이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번 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9곳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힐스테이트 청랑리 더 퍼스트’ 오피스텔, 경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 한양수자인’, 광주 북구 문흥동 ‘더샵 광주 포레스트’ 등이 각각 22일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5/18 (월)	계약	경기	고양시	도내동	더하이브A타워 ♣	5/20 (수)	접수	대구	북구	고성동1가	힐스테이트대구역오피라 2순위											
					더하이브B타워 ♣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동다우갤러리휴리움 1순위											
		인천	수원시	조원동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 (~5/22)			발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 (~5/19)	대구	북구	고성동1가	힐스테이트대구역오피라 ♣									
5/19 (화)	접수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1순위 (당해지역)	5/21 (목)	접수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1순위 (기타지역)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1순위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2순위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2(국민임대) (~5/21)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2순위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1순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포레힐즈스위첸 2순위									
					대구			북구	고성동1가	힐스테이트대구역오피라 1순위	영도구	청학동	청학우성스마티시티뷰 2순위									
	발표	경기	고양시	신원동	고양삼송우미리피아노 ♠	계약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동다우갤러리휴리움 2순위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로제자이	경기	고양시	신원동	고양삼송우미리피아노 ♠ (~5/22)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제이원클래스	대구	북구	고성동1가	힐스테이트대구역오피라 ♣ (~5/22)									
					제주		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더퍼스트시흥 (~5/21)	서울	종로구	전농동	힐스테이트청랑리더퍼스트 ♣									
					대전		유성구	둔곡동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1단지) (~5/23)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2단지) (~5/23)	수원시	정자동	신내동	신내역시티프라자Ⅱ ♣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접수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5/22 (금)	오픈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부산	하남시	갑일동	하남갑일한양수자인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대전	유성구	구룡동	대전둔곡우미리
					부평구								부평동	부평중앙하이츠프리티미어 2순위								
5/20 (수)	접수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화성파크드림2차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 부동산114

롯데건설,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청신호’

서부발전, 매각 중단 가져분 패소
재판부 “우선매수권 행사 결정,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 아냐”

롯데건설이 보유 중인 수백억 원 규모의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8일 한국서부발전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청라에너지 주식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며 낸 가져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부발전은 이 결정에 불복해 11일 항고한 상태다.

청라에너지는 2005년 3월 인천 청라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위해 서부발전과 롯데건설, 인천도시가스가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이들 3사는 청라에너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주주협약 제11조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는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주식 매수를 청야해야 한다는 우선매수권 조항을 명시했다.

서부발전은 청라에너지 전체 발행주식 중 43.9%를 가진 최대주주다. GS에너지가 30.0%, 롯데건설이 26.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0년 2월 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에 주주협약에 따라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통보하면서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공정가치 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제반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부발전은 “2016년 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이는 통상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롯데건설의 지분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져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부발전의 주장을 모두



“보고 싶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희생자 유가족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법령 등은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주주협약 내용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협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이유로 서부발전에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을 위해 7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롯데건설에 손해를 끼쳐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협약의 문언이나 규정 취지상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에 관한 예외 사유를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선매수권 행사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예외 사유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향군 상조자회사, 보훈처 감사대상 아니다”

법원 “독립된 별개 조직에 해당”

재향군인회(향군) 자회사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시정요구 처분과 자회사 수익사업 관련 승인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향군 자회사인 향군상조회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익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향군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에는 재향군인회법을 위반했다며 향군상조회의 일부 사업에 대해 수익사업

취소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보훈처의 시정요구 처분과 관련해 “향군이 출자해 설립한 향군상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하고 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군상조회는 이사회, 감사기관, 대표임원, 의결기관 등 향군과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향군이 독립된 법 인격을 갖는 향군상조회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모든 수익사업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사업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향군상조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 뿐더러 수익사업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서울시 여성창업공간
‘스페이스 살림’ 9월 개관

1차 입주기업 10여 곳 모집

주한미군 기지 캠프 그레이가 있던 서울 동작구 대방동 터에 올해 9월 여성창업공간 ‘스페이스 살림<조감도>’이 개관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페이스 살림’은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 공간이다.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역에서 지하철 연결 통로로 바로 이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고 사무공간, 콘텐츠 제작 공간(촬영·녹음), 콘퍼런스를 등 교육공간, 스타트업 쇼룸·판매공간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여성 창업자 성장을 위한 투자·



판로·네트워크·건강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몸마음 스튜디오, 마을 서재, 공유주방,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영유아 시간제 돌봄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개관에 앞서 1차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총 3차에 걸쳐 약 50개 기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입주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집 방식 및 대상을 다각화해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1차로 10여 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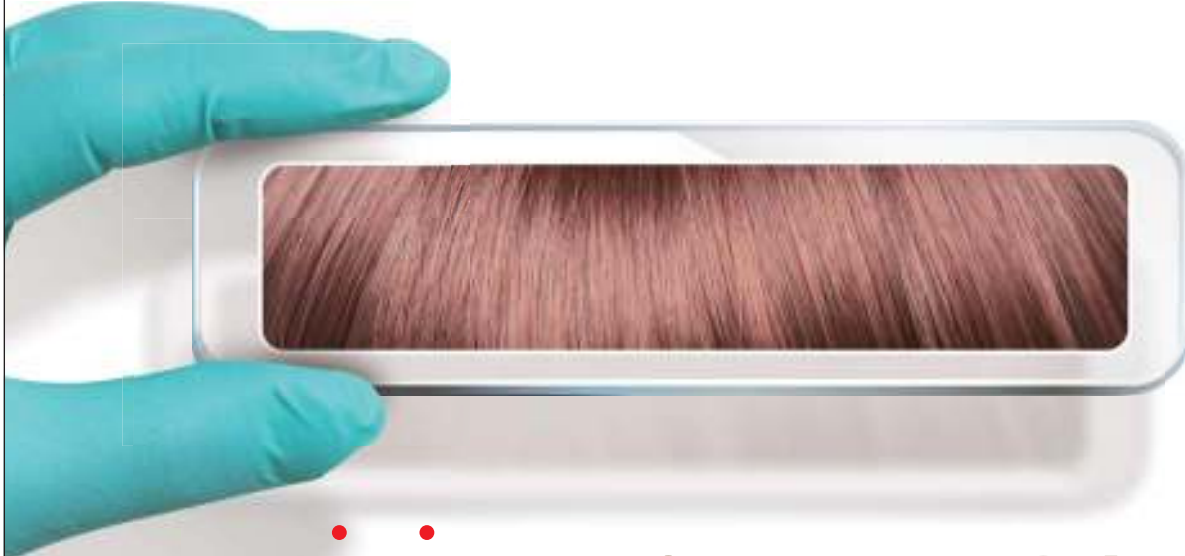
1차 모집 시에는 여성·가족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창업한 지 7년 미만이면서 투자 및 정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여성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은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설경진 기자 skj78@



“집에서 하는 전문 헤어 클리닉”



탈모증상완화에 도움!

현대약품 연구진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미녹솔S 3종세트

현대약품의 국민탈모약 마이녹솔에 감탄한 고객님의 요청으로 탄생했습니다.
탈모증상을 완화하고 모발을 케어하는 현대약품 미녹솔S 집에서든 쉽게 간편하게 탈모관리하세요.

미녹솔S 스케일러 (두피 스케일링 및 각질케어)

자연유래추출물로 두피를 상쾌하고 청결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쿠파펩타이드, 호두껍질, 마유오일, 베타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미녹솔S 샴푸 (두피영양 및 모발케어 / 탈모증상완화 기능성화장품)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어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기능성 성분 4종 : 바이오틴, 판테놀, 나이아신 아마이드, 징크피리치온

자연유래 성분 : 콜라겐, 비타민C,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맥주효모추출물, 여성초추출물, 녹차잎추출물, 자소엽추출물, 로즈마리추출물, 쿠파펩타이드

스칼프 헤어토닉 (두피 및 모발영양)

집중 영양 공급으로 씻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자연유래 성분 : 맥주효모추출물, 유칼립투스잎추출물, 쿠파펩타이드, 붓꽃추출물, 맥아추출물, 멘톨



연준 마이너스금리와 韓銀 직매입 기대감의 공통점



김남현의 **알가월부**

지난주 금융시장 핫이슈는 미국 연준(Fed)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가능성이었다. 이보다 관심은 덜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국고채 직매입 기대감이 확산했다.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고채 발행을 정례화하는 등 국채발행을 확대할 예정인 데다, 우리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이라 기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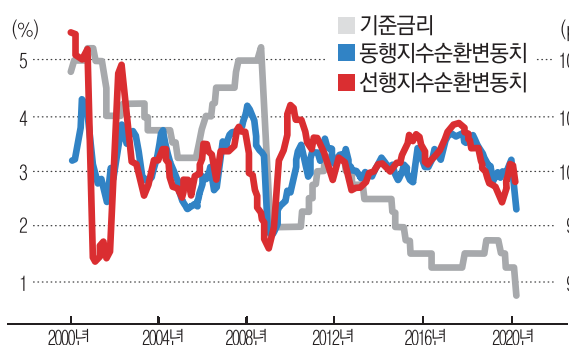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급한 불은 끄고 불 일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대응이다.

다만,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는 반면, 실물경제는 언제 끝날지 모를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은 “한번 더”를 외치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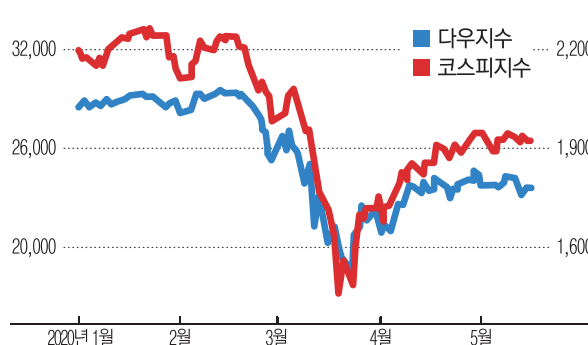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0년 넘게 진행돼 온 완화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밖 변수로 추가 완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좀 이른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이후의 로드맵도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밝혔듯(▷[김남현의 채권 알가월부] “떡(금리인하)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시진2, 2019년 10월 15일 자 기사, ▷마약(통화완화) 달라는 금융시장, 2020년 3월 12일 자 기사) 부작용이 클 수 있어서다.

실제, 연준이 양적완화(QE)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축발작을 일으켰던 과거 사례는 포스트 코로나19 정책이 더 험난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와 QE가 저금리·저성장 고착화와 함께, 금융시장만 호황으로 이어지면서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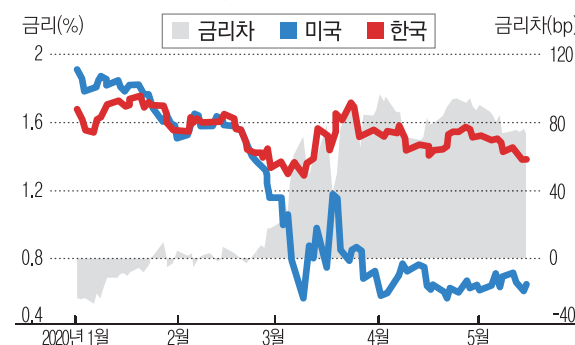
기준금리(좌) vs 경기지수(우)



다우지수(좌) vs 코스피지수(우)



한·미 10년금리 및 금리차



**각국 정부·중앙銀 공격적 통화정책 펼쳐… 한은, 금리인하 초읽기
주식·채권시장 회복 국면으로 금융·실물경제 ‘괴리율’만 커져
‘포스트 코로나’ 정책 더 험난해져… 중앙은행 신중행보 할 때**

국화를 가속화했다.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금융시장만큼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앙은행만큼은 다소 신중한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커진 괴리 = 코로나19 팬데믹 후 약세를 보였던 주식과 채권은 빠르게 회복하며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팬데믹 이전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을 회복했고, 채권시장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4%를 밑돌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 11일(1.369%) 이후 2개월 만에 최저를 경신했다.

반면, 실물경제는 최악을 가리고 있다. 우선, 수출부진에 무역수지는 4월 기준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3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4월 취업자수 감소폭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도 전기대비 마이너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1분기 -1.4%를 기록했었다. 통상 2분기 연속 역성장은 경기침체로 정의된다. 다

만, 한은 관계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례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로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괴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책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각종 안정화대책을 쏟아냈고, 재원마련을 위해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한은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큰 폭(0.50%포인트)으로 인하한 데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 달러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3조 원), 비은행권 대상 환매 조건부채권(RP) 매입(17일 기준 12조 5900억 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10조 원) 등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한 조치들을 취했다.

◇ 파월 “뭘든지 다”, 이주열 “적극적 노력” 언급이 족쇄로 = 코로나19 팬데믹에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각오는 비장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여러 차례 “뭘든지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주열 한은 총재도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

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금융시장 기대를 키우며 족쇄로 돌아오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경제충격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파월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이와 관련해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잭 팬들 글로벌 환율·금리·신용시장 전략 공동 대표는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2차 감염이 폭발할 경우 연준이 결국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환율과 금리로 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망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저자 반열에 오른 오건영 신한AI 자본시장분석팀장도 최근 유명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간 시장의 요구에 밀려온 파월의 행태에 비춰 “올 연말 이후 연준이 마이너스금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3차 추경까지 검토되면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2차 추경 규모는 각각 11조7000억 원과 12조2000억 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늘어난 국채 발행물량은 벌써 13조7000억 원(1차 10조3000억 원, 2차 3조4000억 원)에 이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3차 추경 규모는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당초 국고채발행 규모도 130조2000억 원

으로 역대급이며, 적자국채 발행규모 역시 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증액된 국채물량은 채권시장에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국고채 물량도 연간 발행계획 비중에 맞춰 균등하게 발행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보면 10년물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은 최대 65%에서 최소 5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은이 추경으로 나오는 국고채를 정례적으로 직매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직접적 이유다.

한은의 국고채 직매입은 앞서 밝힌 국고채 단순매입과도 차원이 다른 것이다. 시장은 물론 한은조차도 단순매입과 직매입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단순매입은 유통시장에서 직매입은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행위로 구분된다. 또, 단순매입은 시장안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표물이 아닌 비지표 경과물을 주로 사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직매입은 기재부가 발행하는 지표채권 입찰에 한은이 직접 참여해 사간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상당하다.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준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웍스엔지니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차 하나에 디자인 3개…취향 따라 같은 차 다른 느낌”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디자이너 4인방 만나다

종이 위에 그린 스케치가 실제 자동차로 탄생하기까지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순간은 없다. 올해 1월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개발에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소속 디자이너 수십 명이 처음과 끝을 함께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쉐보레 SUV 라인업에서 중소형 차급을 책임지며 현대차 베뉴, 기아차 셀토스, 쌍용차 티볼리 등과 경쟁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조직인 GMTCK가 디자인과 개발을 주도했고, 내수와 수출 물량 생산까지 부평공장이 전담한다. 특히 이 차는 한국지엠이 경영난을 겪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개발한 신차다. 무엇보다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탄생했다.

이투데이가 트레일블레이저 디자인에 참여한 황보영 GMTCK 디자인센터 인테리어 1팀장, 호용방 인테리어 3팀장, 정영호 익스테리어 3팀장, 김흥기 컬러 앤 트림 팀장 등 네 명의 디자이너를 15일 만났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디자인에 참여한 정영호(왼쪽부터) 팀장·호용방 팀장·김흥기 팀장·황보영 팀장.

사진제공 한국지엠



◇디자인, 차 개발의 A to Z=“드디어 나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죠.”

김흥기 팀장은 트레일블레이저가 오랜 시간 다양한 부서와 논의 끝에 성공적으로 출시됐을 때 감동을 숨길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차 한 대를 만들기까지 디자이너는 수많은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친다. 디자이너는 초기 스케치를 시작으로 복수의 디자인 테마를 선정해 3분의 1 크기로 클레이 모델을 만든다. 하나의 테마가 선택되면 실제 차와 같은 크기의 클레이 모델을 만들어 디자인을 다듬는다.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엔지니어에게 전달해 구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을 반복한다.

차가 구동하는 과정, 소비자가 원하는 사양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완성도를 높이는 디자인 작업은 계속된다.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한 이유다.

◇차는 ‘하나’, 디자인은 ‘셋’? 경쟁 차종에 대응하기 위해 트레일블레이저는 디자인 다변화 전략을 취했다. 하나의 차체로 세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도심형 프리미엄 트림을 기본으로 ACTIV 트림에는 아웃도어 느낌을 강조했고, RS 트림에는 스포츠카 디자인을 넣었다.

트레일블레이저 외장 디자인을 담당한 정영호 팀장은 “하나의 정해진 보디를 가

지고 트림별로 차별된 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했고, 엔지니어와 수많은 논의와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18년째 차 디자이너로 일하는 황보영 팀장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김흥기 팀장은 “RS 트림을 예로 들면,

7년 만의 자체 개발 신차

아웃도어·스포츠 선택폭 넓혀

열선 핸들·통풍 시트 편의사양

한국지엠서 개발했기에 가능

전용 클러스터와 D컷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레드 액센트로 스포티함을 더했다”며 “트림마다 특색을 살려 적용한 디자인과 소재를 고객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디자인 다변화 전략은 국내 고객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할 뿐 아니라, 수출 시장 대응에도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예컨대 오프로드 분위기를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에게는 ACTIV 트림을 앞세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영호 팀장은 “ACTIV 트림에는 미국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 밝은 크롬 대신 티타늄 크롬을 넣었고,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에도 오프로드 분위기를 살렸다”고 설명했다.

◇‘손파’, 한국지엠이 만들어 가능한 기능=트레일블레이저는 열선 핸들(일명 ‘손파’)과 애플 카플레이, 폴 파노라마 선루프 등 다양한 편의, 첨단 사양을 갖췄다. 호용방 팀장은 한국지엠이 개발을 주도했기에 상품성 높은 사양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만큼 꼼꼼하게 제품을 비교하는 고객은 없을 겁니다. 국내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열선 핸들, 통풍 시트, 가죽시트를 적용했는데, 한국지엠이 개발을 주도해 가능한 일이었지요.”

◇트레일블레이저 상징이 된 ‘이비자 블루’ 컬러=트레일블레이저가 처음 공개됐을 때 차의 독특한 색상이 큰 관심을 끌었다. TV 광고에도 등장한 이 색의 이름은 ‘이비자 블루’. 굳이 표현하자면 밝은 코발트블루에 가깝다.

김흥기 팀장은 이비자 블루 개발 과정에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연식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는 차체 색상의 개수가 제한적이지만, 당시 디자인팀은 트림별로 특색을 살린 색상을 넣기 위해 수많은 글로벌

GM 조직과 논의했다. 이비자 블루도 이런 논의 과정에서 탄생했다. 김 팀장은 “개발 당시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새로운 색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진행한 결과 광고 차의 색으로 채택되는 등 대표색(키 컬러)으로 자리 잡았다”고 회상했다.

디자인팀이 추구한 새로운 색상은 실제 시장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트레일블레이

‘슬림하면서 단단한 디자인’

쉐보레 정체성 지키며 개성 살려

올 4월까지 내수 판매 12%↑

“글로벌 베스트 셀링카 되길”

저 고객의 약 30%가 이비자 블루와 아가타 레드 등 밝고 화려한 외장 색을 선택하고 있다.

◇앞으로의 쉐보레 디자인, ‘기본과 개성’의 조화=각 자동차 회사 디자인에는 ‘패밀리 룩’이 존재한다. 특정 디자인만 보고도 어느 회사의 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BMW의 ‘키드니 그릴’, 제네시스의 ‘두 줄 램프’, 기아차의 ‘타이거 노즈’ 등이 대표적이다.

쉐보레도 ‘듀얼 포트 그릴’이라는 공통

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있다. 전면부 그릴이 상·하단 두 개로 나뉜 형태다. 하지만 의외다. 디자이너들은 쉐보레의 패밀리 룩 디자인을 확실히 적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슬림하면서도 단단한 디자인’이라는 쉐보레의 디자인 언어 ‘린 머스큘러 디자인(Lean muscular design)’을 유지하면서도, 각 제품의 특성과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달까지 5만 대 이상의 누적 수출과 꾸준한 내수 판매를 기록하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올해 1~4월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1.6% 늘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출시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를 만났지만, 초기 실적은 긍정적인 수준이다.

작은 스케치에 머물던 트레일블레이저가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수출되는 모습에 디자이너들은 한목소리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또, 어려운 시장 상황을 넘기고 이름에 걸맞은 차로 거듭나길 희망했다. “개척자라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이름에 걸맞게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베스트 셀링카’가 되길 바랍니다.”

유창욱 기자 woogi@

개발진 4분의 1 ‘전기차 프로젝트’ 참여 디자인 스튜디오는 세계 두 번째 규모

한국지엠 두뇌 ‘GMTCK’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는 한국지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디자인센터, 엔지니어링센터, 엔진구동개발센터, 생산기술연구소, 청라주행시험장 등 자동차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설을 갖췄고, 현재 33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쉐보레 스파크와 아베

오, 크루즈 등 GM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제품 신차 개발을 주도하거나 협업을 수행했고 최근에는 트레일블레이저 개발을 처음부터 주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지엠에 생산 배경이 확정된 새로운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연구개발도 이끌고 있다. 특히, 전체 연구인력 중 4분의 1은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GM의 미래 차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전경.

그중에서도 디자인센터는 전 세계 6개의 GM 글로벌 디자인 스튜디오 중 북미 워렌(Warren) 스튜디오 다음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익스테리어 디자인(Exterior Design)팀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팀 △컬러&트림(Color & Trim)팀 △스컬프팅

(Sculpting)팀 △스튜디오 엔지니어링(Studio Engineering)팀 △디자인 퀄리티(Design Quality)팀 △디지털 디자인(Digital Design)팀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Global Creative Visualization)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Program Management)팀 △비즈니스 오퍼레이션(Business Operation)팀 등 10개 팀으로 구성된 디자인 센터에는 150여 명의 디자이너와 직원이 근무 중이다.

GM은 2014년 GMTCK 디자인센터에 400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두 개 면적(1만6640㎡)까지 규모를 확장하고, 최신 디자인 설비를 새롭게 확충했다. 이후 GMTCK 디자인센터는 쉐보레 브랜드

뿐 아니라 캐딜락(Cadillac), 뷰익(Buick) 등 GM의 고급 브랜드 제품 디자인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줄리안 블리셋 GM 수석 부사장은 지난해 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GM이 앞으로 30년은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로베르토 램펠 GMTCK 사장은 “GMTCK는 GM 글로벌 R&D 센터에서 차 개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설비와 자원을 갖춘 핵심적인 사업장”이라며 “GM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엔진·변속기, 전기차 기술 등 상당한 영역에서 GM의 글로벌 신차 개발을 리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_{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_{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더마코스메틱 1위 넘어 K-뷰티 선봉장 될 것”

이지함화장품 프리미엄화 나선 정인전 대표

첫 작품 ‘레드 프로폴리스 30 비타 앰플’ 홈쇼핑방송 완판 행진
여성복 브랜드 ‘잔빠’ ... “화장품·패션, 고객 트렌드 민감 공통점”

국내 최초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이지함 화장품이 브랜드 탄생 26년 만에 프리미엄화에 나선다.

이지함 피부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이지함 화장품의 변신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바로 정인전(사진) 대표다. 정 대표는 데코 등 10여 년 넘게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복 브랜드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정 대표는 “화장품과 패션은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을 만족시켜야 성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2018년 9월 이지함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 이후 피부과와 화장품이란 이미지가 강했던 이지함 화장품 역시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리뉴얼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지함 피부과의 노하우를 살리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지함 화장품의 리브랜딩을 시작했다.

이지함 화장품은 화장품과 제약이 결합

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답게 문제성 피부 질환을 가진 고객을 위한 ‘피부 치료’ 제품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브랜드다. 특히 스포케어 ‘블루원’은 누적판매 1000만 병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블루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레드 프로폴리스 30 비타 앰플’ 라인 역시 피부 건조와 탄력 저하로 인한 노화 방지 효과를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레드 프로폴리스는 정 대표의 야심작이다. 레드 프로폴리스는 그린·옐로우 프로폴리스보다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성분이다량 함유돼 있다.

정 대표는 원료부터 진정성을 담은 제품으로 제작하자는 목표로 직원들과 함께 수백 가지의 제품과 원료를 테스트한 결과 레드 프로폴리스를 찾아냈다. 그러나 원료의 수급이 문제였다. 정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브라질 청정 지역의 벌집에서 극소량



만 추출할 수 있는 레드 프로폴리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망 확보에 공을 들였다.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되자 그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 또한번 과감한 시도를 단행했다. 고가의 레드프로폴리스를 30%나 함유한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정 대표의 노력의 결실에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4월 롯데홈쇼핑에서 단독 방송으

로 첫선을 보인 후 연령대와 관계없이 고른 소비층의 호응을 얻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매 방송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더마코스메틱 명가를 넘어 프리미엄 스킨케어로도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는 “이지함에 대한 명성과 제품력 그리고 가심비가 소비자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준 것이 레드 프로폴리스 30 비타 앰플라인”이라며 “방송 이후 제품에 대한 수많은 긍정적인 댓글이 이어졌고 온라인 면세점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해외 문의가 이어지며 물량 확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브랜딩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자 정 대표는 새 목표를 세웠다. 이지함 화장품을 K-뷰티의 선봉에 서는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것.

정 대표는 “현재 차세대 레드 프로폴리스 원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 및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의 올인원 스킨케어 등 신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며 “‘피부가 묻고 이지함이 답하다’라는 이지함의 슬로건처럼 고객과 소통을 통해 이지함 화장품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에
김용석 前 국토부 도로국장 임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김용석(54) 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1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차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용석 신임 차장은 1966년 전남 장흥 출생으로 의정부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크랜필드대에서 교통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2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기획단 단장, 교통정책조정과장, 주아제르바이잔공화국대사관 참사관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행복정에서는 기반시설 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고대구로병원 김정아 교수
‘제1회 보령전임의상’ 수상

고려대 구로병원은 내분비내과 김정아 교수가 한국여자의사회가 수여하는 ‘제1회 보령전임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보령전임의상’



는 연구 업적이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끼친 공이 큰 전임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신설됐다. 김 교수는 ‘공복혈당 변동성이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고려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면허와 약사면허를 모두 갖췄다. 당뇨병, 근감소증 등에 대한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5편의 SCI급 저널 및 1편의 리뷰 저널이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화웨이, 공학계열 대학생 장학금 전달



임연해(왼쪽) 한국화웨이 홍보 및 대외협력 본부장이 1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이계영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에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학계열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 ‘푸른등대 한국화웨이 기부장학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화웨이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총 5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0명의 장학생들을 후원해 왔다.

코로나19 후 세계 첫 골프대회
KLPGA ‘메이저 쉐프’ 은 박현경



박현경이 17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박현경은 KLPGA 투어 2년 차로 29번째 대회 출전 만에 첫 우승을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했다. 우승 상금은 2억2000만 원이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열린 골프 대회이다.

양주/뉴시스

“코로나19 책임 없는 척해” 트럼프 저격한 오바마

일주일 만에 또 맹공...대선판 ‘구원등판’ 전·현직 대결구도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 대학의 온라인 졸업식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해 설립된 대학인 HBCU의 온라인 졸업식 축사에서 “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정상에 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노출됐다”며 “책임지는 척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연설 중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연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다.

오바마는 또 “세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흑인 사회가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언급



하며 “이런 재앙은 미국에서 흑인 사회가 역사적으로 직면해 온 잠재적인 불평등과 과중한 부담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정권을 저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달 8일 전 정권 스태프들과의 비공식 전화 회의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코로나19 대책을 “대참사”라고 혹평했다.

오바마 연설 직후 백악관은 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바이러스 대응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반박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우아한청년들, 교통안전공단과 라이더 사고 예방 MOU

우아한청년들은한국교통안전공단과이륜차 배달원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체험센터에서 김종현(사진 왼쪽)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과 윤현준(오른쪽) 우아한청년들 대표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

약을 통해 우아한청년들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배민 라이더·커넥터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이륜차 교통 안전 교육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윤현준 대표는 “배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라이더·커넥터 종사자의 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업무



협약은 라이더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소통총괄비서관 조윤재 ◇과장급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정동혁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감사원 국장 양은전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삼익실장 김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최도영 ◇과장급 전보 △연구예산총괄과장 오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통상정책과장 정대진 △통상협력과장 전운중 △자유무역협정정책과 노건기 △통상법무정책관 유법민 △투자정책관 박정욱 △무역안보정책관 최규중

◆보건복지부 ◇과장급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장영진 △“한의학정책과장 오진희 △건강보험정책과 예비급여

과장 성장현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 서일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이상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정영훈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박재찬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 손일룡 △국립부국병원 서무과장 강호욱

◆고용노동부 ◇4급 전보 △디지털소통팀장 박정현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팀장 김성호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김중호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토정책관 김규현 △도로국장 주현중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박성진 ◇국장급 승진 △국토정보정책관 남영우 ◇과장급 전보 △주택기금과장 한성수 △토지정책과장 정우진 △도시재생정책과장 황윤언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임현량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상임위원 윤수현 ◇과장급 전보 △서비스업

감시과장 김성근 △지식산업감시과장 이득규 △대통령비서실 전출 안병규

◆법제처 ◇부이사관 전보 △법령해석총괄과장 방극봉 ◇부이사관 파견 △경기도 법제협력관 최종진 ◇과장급 전보 △법제조정총괄법제관 김한울 △법제조정법제관 박준수 △행정법제국 법제관 박종일 △법제지원총괄과 정용복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징세과장 유병철

◆한국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 △경영전략본부장 남상용 ◇전보 △석연탄산업지원단장 노순규 △광해기획실장 김태혁 △비금속광해실장 임영철 △석탄지원실장 정종희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장 최흥규

◆한국석유관리원 △경영이사 이용구

◆KBS △편성본부 영상제작국 총감독 황수영 △“한승현

◆조선비즈 △디지털편집국 선임기자 전태현

부음

‘무명시절’ 비틀스 담아낸 사진작가 키르헤

전설적 영국 밴드 비틀스의 신인 시절 모습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낸 독일 사진작가 아스트리트 키르헤(사진 뒷줄 왼쪽)가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AFP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향년 81세.

키르헤는 1960년 함부르크의 카이저켈러(Kaiserkeller)라는 클럽에서 당시 무명이던 비틀스의 공연을 처음 본 후 이들을 사진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그들이 너무 멋져 보여 머릿속에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것 같았다”며 “단 몇 분 안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오직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알고 싶었다”고 당시를 회고



했다. 링고 스타는 트위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아스트리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는 글을 올리며 애도했다.

▲최을순 씨 별세,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씨 모친상 = 17일, 평택시 송탄 중앙병원장례식장 귀빈실, 발인 19일 오전 6시, 031-611-1199

▲최명희(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씨 별세, 최훈(건설경제조합 과장) 씨 부친상, 조의준(조선일보 워싱턴특파원) 씨 장인상, 김설아(건설경제조합 과장) 씨 시부상 = 16일, 서울 송파구 국립경향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50분, 02-3400-1400

▲송유나(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씨 별세 = 17일, 서울성모병원(강남)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2-2258-5940

갈등 관리, 국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임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선거 때마다 이념의 대립을 강요당하고, 계층·집단·지역·노사 갈등은 뿌리 깊다. '조국 사태'는 극단의 대결 정치와 진영-이념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근에는 세대-갑을 관계 등 다양한 곳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가령 강화된 청약가점제를 놓고, 20·30세대는 젊은 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차단하고 50대 이상에게 수혜가 돌아간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반대로 신혼희망타운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선 5060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더 오래 기다린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멘 소리를 한다. 신혼부부도 아니고 가점제로도 안정권이 아닌 40대는 '나는 외계인인가(청약 낀세대)'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직장 내 갈등은 또 어떤가. 대한상공회의가 최근 내놓은 '한국기업의 세대갈등과 기업문화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중견기업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윗세대로 갈수록 세대 차이 체감도는 높았다. 세대 갈등은 야근, 업무지시, 회식 등 업무 문화에서 다양했다.

이런 사회 갈등을 부추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시민단체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조사를 보면 '집단 사회갈등에 책임이 있는 집단'을 꼽아달라(복수응답)는 질문에 응답자의 93.1%가 '국회'를 지목했다. 재난지원금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기준 지급으로 설계했으나 여야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전 국민 지급'을 공

데스크칼럼

김 문 호

자본시장2부장



약,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충돌을 빚었다. 초기 지급 기준을 놓고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소외된 직장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끝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부 선언으로 불기 시작한 재난지원금 기부 바람 때문에 노사 간 마찰음을 내는 곳까지 생겼다. 기부하느냐를 놓고 뜻밖에 부부간 생각이 달라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갈등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갈등'으로 한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한 해 82조~24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다. 2, 3차 감염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단적인 예다. 첫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 중 여러 곳이 성소수자들이 주로 다니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사회적 비난이 일자 '아우팅(성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을 걱정 한 방문자가 종적을 감췄고,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직업을 숨겨 무더기 2, 3차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를 해소하거나 수

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된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2011년 기준)에 그쳤다. 한국(0.380)은 멕시코(0.068), 터키(0.151), 그리스(0.206) 등 7개국과 함께 바닥권을 맴돌았다고 한다.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정부의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정부의 효과성, 규제질, 부패 통제, 정부 소비지출 비중 등을 평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갈등만 잘 관리해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사회갈등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증가하고, 갈등관리를 10% 높이면 1인당 GDP가 1.75~2.41% 늘어난다는 것이다.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적당한(선의) 갈등과 논쟁은 긍정적 변화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정글 같지만, 대립이 옹호받는 이유다.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 때문에 갈등을 키우거나 정부가 갈등을 잘못 관리하는 데 있다. 갈등과의 '전쟁'은 한철 과제가 아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했다. 정부는 우선 갈등관리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갈등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어 대립을 부르는 균열의 사이를 매꿔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비용은 더 커진다.

kmh@

송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익숙했던 것도 오래 지나면 잊힌다. 잊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마주하면 굉장히 반갑고 새롭다. 컴퓨터의 플로피디스크나 턴테이블에서 돌던 LP, 그리고 워크맨과 카세트테이프를 보면 그렇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지금 다시 예전 피쳐폰을 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때 그 폰을 사용하던 시절의 추억은 덤이다.

2009년 아이폰 등장 이후, 전면에 폴더치 스크린을 장착한 스마트폰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디스플레이 베젤이 줄고, 화면이 좀 더 짝 차는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은 한결같았다. 폴더폰, 플립폰 등 다양한 개성을 자랑하던 휴대폰은 옛 얘기가 됐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제조사들은 폴더블폰 등 새로운 폼팩터의 혁신 제품을 내놨다. 특히 최근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 출시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추억을 겨냥한 것이다.

LG전자가 15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 'LG 벨벳'은 8년 만에 G 시리즈 브랜드

스마트폰 시장에 부는 레트로 바람

를 과감하게 없애고 선보인 첫 제품이다. 피쳐폰 시대를 풍미했던 '초콜릿폰' '샤인폰' '롤리팝폰'처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붙여 히트 제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일종의 레트로 작명법인 셈이다.

더 나아가 LG전자는 피쳐폰 시절 디스플레이를 세로에서 가로로 돌리는 기능을 스마트폰에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듀얼 스크린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이다. 과거 삼성전자 애니콜 '가로본능'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역시 레트로 감성이 한껏 묻어 있다.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휴대폰은 온갖 디자인이 가능했다. 그래서 당시 휴대폰 디자인과 색상은 천차만별이었다.

최근엔 나만의 감성과 개성으로 '하나뿐인 Z 플립'을 만드는 유저들도 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서 '갤럭시 Z 플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스티커와 휴대폰 고리 등을 활용해 본인의 갤럭시 Z 플립을 꾸민 사용자들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기존 스마트폰은 전면이 디스플레이로 딱 차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컬러와 케이스 등으로 꾸밀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었어요. 갤럭시 Z 플립은 접었을 때 메이크업 컴팩트나 지갑과 같은 패션 소품에서 영감을 받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에 멋을 주는 강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기획팀 김자겸 프로의 말이다.

애플도 아이폰 사용자들의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을 공개했다. 바로 아이폰SE 2세대다. 첫 번째 아이폰SE가 출시된 지 4년 만이다. 아이폰SE 1세대 제품이 아이폰5S의 프레임틀을 가져왔다면, 2세대 제품은 아이폰8의 디자인을 구현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홈버튼을 그리워하는 옛 아이폰 사용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하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레트로 전략이 침체에 빠진 시장을 구해낼 수 있을까. 두고 봐야 알겠지만, 틈새 전략으로는 일단 손색이 없어 보인다.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옛 피쳐폰들이 '레트로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syr@

사설

리쇼어링, 수도권 풀고 기업환경 혁신해야

정부가 해외로 나간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추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이 공장 신증설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입지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국토균형개발을 이유로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가 적용돼 공장 신증설이 사실상 막혀 있다. 기업들은 물류나 원자재 조달, 우수인력 확보 등의 이점 때문에 수도권 입지가 절실하다. 하지만 규제에 갇혀 투자를 못하고 고용창출 기회 또한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을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턴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률'을 만들어 유턴기업에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과는 보잘것없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7년여간 겨우 64개 기업만 돌아왔을 뿐이다. 법을 개정해 3월부터 법인세 및 관세 등의 혜택을 늘렸지만 수도권 공장 규제는 여전하다.

반면 미국은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35%→21%), 공장 이전비 지원, 규제의 철폐 등으로 2016년 이래 해마다 수백 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은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국제분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공급망이 붕괴되고, 지구적 차원의 협력구조가 깨지는 상황이다. 싼 임금과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곳을 찾아 공장을 옮겼던 그동안의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퇴조하고 자국중심주의가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세계의 기업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삼았던 구도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국내의 안정된 생산기반 확보가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리쇼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유턴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척박한 기업환경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핵심 장애이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악화, 갈수록 촘촘해지는 환경 및 안전규제, 세제 등 정책지원 미비 등의 요인이 크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환경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기업정책의 근본적인 재편이 요구되는 이유다.

■ 미리 보는 한 주

KDI, 경제성장을 전망 얼마나 내릴까

이번 주(5월 18~24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발표하고, 통계청이 소득과 지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편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내놓는다.

20일(수) 나오는 KDI의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연구기관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전망을 얼마나 내릴지가 관심이다. KDI는 지난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3월 소매 판매액과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하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대외수요의 본격적인 위축으로 4월 수출이 모든 품목과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21일(목) 발표되는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2018년 표본 논란 이

후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하도록 개편하고 처음 나오는 것이다.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표본을 사용했고, 소득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조사방식은 가계부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소득격차는 2년 만에 좁혀졌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8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다. 통합 개편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가계의 소득격차 감소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0일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한다.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600조1000억 원으로, 16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중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 속 보지 통계에 따르면 1~3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2조6000억 원이었다. 21일엔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나온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100명이 한 자리에
아니, 한 통화에 모입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한 회의실에 모이지 않아도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
100명이 참여하는 회의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까지  T그룹통화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지금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T그룹통화'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T전화' 앱에서도 30명까지 그룹통화가 가능합니다.